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夢窩 金昌集斗 老稼齋 金昌業의  
「燕行壘簾錄」研究

濟州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程 丹

2015年 8月

夢窩 金昌集과 老稼齋 金昌業의  
「燕行壙簾錄」研究

지도교수 김상조

程 丹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5年 6月

程丹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_\_\_\_\_ (印)

委 員\_\_\_\_\_ (印)

委 員\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5年 6月

A Study on Yeonhaenghoonjirok by Mongwa  
Kim Chang-Jip and Nogajae Kim Chang-Eop

Cheng Dan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ang-J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15. 0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Kim Sang-Jo, Prof. of Literature

.....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목적 .....	1
2. 연구사검토 .....	3
II. 「燕行壘簾錄」의 역사적 배경 및 金昌集과 金昌業의 생애 .....	9
1. 淸의 발전과 朝鮮과의 관계 .....	9
2. 金昌集과 金昌業의 생애와 「燕行壘簾錄」의 배경 .....	12
III. 「燕行壘簾錄」의 세계 .....	17
1. 「燕行壘簾錄」개관 .....	17
2. 淸에 대한 적대감 .....	26
3. 先親에 대한 회고 .....	35
4. 故國과 家族에 대한 그리움 .....	40
IV. 金昌集과 金昌業의 「燕行壘簾錄」 비교 .....	48
V. 결론 .....	65
<참고문헌> .....	68
<中文摘要> .....	70

# I. 서론

## 1. 연구목적

한중 양국은 가까운 지리위치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왕래하며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다. 두 나라는 문화, 정치, 경제 등 여러 방면에서 교류를 해왔고 양국이 冊封朝貢 관계가 확립된 후 서로 사신을 파견하여 사행하였다. 파견된 사신들은 많은 기록물을 남겼으며 서로의 정세와 발전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중국 사행은 기본적으로 正使, 副使, 書狀官의 三使가 공식 사행원이 되며 그 외에 수행자가 30여명에서 많아서 500명이 될 때도 있었다고 한다. 매년 실시되는 사행은 조선 외교 정치사나 문화교류사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크나 또한 문학 적 성과가 큰 의미를 갖는다. 중국 사행은 1년에 1회 이상 왕래하면서 공식적인 기록을 제외하고도 개인적인 기록물들이 많이 산출되었다. 공식적인 사행기록은 騰錄인데 이와 더불어 보고를 위한 사행기록은 逐日記事, 狀啓, 聞見別單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공식적인 보고와는 달리 개인적인 사행문학이 창작되었다. 특히 조선후기 사행문학은 새로운 시대의식을 모색해 나가는 시점과 맞물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행은 대개 동일한 여정을 반복하지만 청나라 이후의 많은 연행기록들은 당대 현실의 분위기와 작자의 개성이 합쳐 다양한 인식을 보여준다. 기존의 사행기록은 크게 使行散文, 使行漢詩, 使行歌辭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 산문과 한시가 중심적인 장르이다. 使行漢詩는 사행자들 끼리 서로 수창하는 경우와 여정의 여러 가지 감상을 토로하는 개인적 정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보편적이다.<sup>1)</sup>

壬辰倭亂과 丙子胡亂을 겪은 17, 18세기는 對明義理論이 대두되던 시기이다. 그러나 거듭된 사행과 청나라로부터의 서적의 수입 등은 지식인층의 자성을 촉

1) 金亞利, 「老稼齋燕行日記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p.4 참조.

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청은 “雪恥復讎”의 대상이 아니라 보고 배우려는 대상이 되었다. 이 시기의 조선사회의 고찰에 있어 텍스트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夢窩 金昌集, 老稼齋 金昌業 가문의 문집들이다. 이 가계는 증조부 淸陰 金尙憲(1570-1652)을 시작으로 정치와 문학의 거대한 문벌을 형성하였다. 이 거대 문벌은 국내의 정치 및 외교의 일선에서 활약하였기에 일찍이 중국과 접촉할 수 있었다. 金尙憲은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오고 또 丙子胡亂으로 청나라에 잡혀갔다 와서 「朝天錄」, 「雪窩集」 등의 한시집을 남겼다. 夢窩 형제의 부친인 文谷 金壽恒(1629-1689)도 두 번의 사행을 통해 사행일기 「癸巳日記」와 「癸丑日記」를 남겼다. 선조의 사행기록은 夢窩와 老稼齋의 대청의식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夢窩 金昌集은 1712년(숙종 38년) 연경에 다녀오게 되었는데, 이 때 그의 동생 老稼齋 金昌業도 형을 따라 연경에 다녀왔다. 이들은 여행길에서 느끼는 감회를 읊은 시를 많이 남겼는데 이들을 정리하여 『夢窩集』과 『老稼齋集』에 「燕行熏籠錄」<sup>2)</sup>이라는 같은 이름의 시집을 각각 남겼다(이하 각각 「夢窩熏籠錄」, 「老稼齋熏籠錄」으로, 통칭으로는 「熏籠錄」으로 약칭한다). 이들 「熏籠錄」은 시라는 장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들이 여행 시에 느꼈던 내밀한 감정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밖에도 老稼齋는 방대한 양의 『老稼齋燕行日記』<sup>3)</sup>(이하 『일기』로 약칭한다)라는 기록물을 남겨 여행의 경과를 상세히 남겨놓고 있다. 『일기』는 그의 견문을 그대로 담은 것으로 「熏籠錄」에서 하지 못한 말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다. 이 「熏籠錄」과 『일기』는 조선 후기 대표적인 對明義理論者의 후손이 남긴 여행기록이란 점에서 큰 연구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들이 여행하였던 시기는 양난을 겪고 몇 십 년이 지났고 동아시아의 사회질서도 비교적 안정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노론을 대표하는 집안의 후손으로서 이들의 인식 또는 당시 사대부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궁금하기도 하였다. 老稼齋는 평생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고 반대로 夢窩는 老論四大臣의 한 명이었고 영의정까지 오른 인물이었다. 이러한 요소와 더불어 「熏籠錄」을 고찰하

2) 金昌集, 「燕行熏籠錄」, 『夢窩集』 卷3, 『韓國文集叢刊』 158집, (1995년), 48면-73면.

金昌業, 「燕行熏籠錄」, 『老稼齋集』 卷5, 『韓國文集叢刊』 175집, (1996년), 101면-115면.

(이하 출전은 이 책의 면수만을 밝히기로 한다.)

3)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연행록선집』4, 민족문화추진회, 1989.

는 것이 흥미 있는 작업이 아닐 수가 없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老稼齋熏簾錄」에 대한 연구는 그의 『일기』에 대한 연구 작업으로 인하여 조금은 이루어진 바가 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작품만으로 그 시대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는 것보다는 같은 시기의 작품을 함께 고찰하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老稼齋熏簾錄」과 「夢窩熏簾錄」을 텍스트로 삼아 함께 고찰하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夢窩 형제의 동질성과 차이점을 연구의 중점에 두어 夢窩 형제가 먼 사행길을 함께 하면서 지은 시문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夢窩 형제가 연행했던 당시의 사회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즉 당시의 조선사회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청나라와는 어떤 관계였으며 청나라의 발전현황은 어떠했는지에 중심을 두어 확인하고자 한다. 연행 시 조선사회와 청나라의 관계는 형제의 대청의식 형성의 중요한 배경이고 청나라의 발전현황은 이들의 대청의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는 선행연구에서 이미 수집된 자료와 새로 찾아본 자료를 종합해서 夢窩 金昌集과 老稼齋 金昌業의 가문인 壯洞金門 그리고 夢窩와 老稼齋의 생애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것은 「熏簾錄」의 창작배경이며 夢窩 형제의 대청의식 및 내면세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자료인 「熏簾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夢窩 형제가 연행길에 어떻게 오르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夢窩와 老稼齋의 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즉 형제의 동질성을 淸에 대한 적대감, 先親에 대한 회고, 故國과 家族에 대한 그리움 세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는 것이다.

4장에서는 형제의 「熏簾錄」시문을 비교하면서 동질성 외에도 어떤 차이점을 보였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 2. 연구사검토

夢窩 형제의 「熏簾錄」 또는 시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김남



기는 「金昌集의 삶과 시세계」<sup>4)</sup>에서 『夢窩集』에 실린 시를 대상으로 ‘出處와 遊賞의 시편’, ‘燕行熏籠錄의 시편’, ‘南遷錄의 시편’ 등 세 가지 범주로 金昌集의 한시를 고찰하였고, 구분현은 「老稼齋 金昌業 한시 연구」<sup>5)</sup>에서 『老稼齋集』에 실린 시편을 대상으로 ‘東莊에서의 시편’과 ‘연행체험시의 시편’으로 金昌業의 한시를 고찰하였다.

尹景喜는 「18세기 초 壯洞金氏 일문의 연행체험-金昌集의 ‘燕行熏籠錄’을 중심으로」<sup>6)</sup>, 「燕行熏籠錄小考」<sup>7)</sup>를 발표하면서 「熏籠錄」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인 바 있다. 「18세기 초 壯洞金氏 일문의 연행체험」에서는 「熏籠錄」에 수록된 시를 인용하면서 「熏籠錄」의 면모를 소개하였다. 「燕行熏籠錄小考」에서는 「熏籠錄」에 대하여 夢窩 형제의 시를 개괄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夢窩와 老稼齋의 한시 세계에 대해서는 초보적인 연구가 조금은 이루어진 바 있으나 「熏籠錄」은 『일기』에 비해 늦게 주목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초보적인 단계에 이르며 아직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달리 『일기』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본고의 주 연구 대상은 아니지만 「熏籠錄」 저자의 한 사람인 老稼齋의 『일기』의 연구 성과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그 동안 학계에서는 연행록의 역사적, 문학적 가치에 대해 주목해 왔으며 많은 연구 성과가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이른바 ‘三家燕行錄’ (『老稼齋燕行日記』, 『湛軒燕記』, 『熱河日記』)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sup>8)</sup> 이 중에서 특히 『老稼齋燕行日記』는 “이후 많은 燕行錄群의 典範이 된 연행교과서”<sup>9)</sup>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기』에 대한 초보적인 연구로는 李京子の 「老稼齋燕行日記 小考」<sup>10)</sup>를 들을

4) 김남기, 「金昌集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2권, 2008.

5) 구분현, 「老稼齋 金昌業 한시 연구」, 『한국한시작가연구』 13권, 2009.

6) 尹景喜, 「18세기 초 壯洞金氏 일문의 연행체험 - 金昌集의 燕行熏籠錄을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 제19집, 2007.

7) 尹景喜, 「燕行熏籠錄 小考」, 한국어문학 국제학술포럼 제5차 국제학술대회, 2008.

8) 전일우, 「한중 사행문학 연구사」, 『총서』 5, p.471-472.

9) 趙洙翼, 「老稼齋의 中國體驗-그의 연행일기를 중심으로」, 『旅行과 體驗의 문학』(중국편),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6.

金泰俊, 「燕行錄의 教科書 老稼齋燕行日記」, 『국제한국학연구』 창간호,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2003.

10) 李京子, 「老稼齋燕行日記 小考」, 『한성어문학』 3, 1984.

수 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기』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다. 이경자는 연구의 필요성과 金昌業의 연행동기 및 노정을 다루며 『일기』의 문학적 가치를 언급하고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金彰顯의 「老稼齋燕行錄에 대하여」<sup>11)</sup>는 원래 『일기』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짧은 글이나 같은 자리에서 『夢窩集』과 『老稼齋集』에 있는 「熏簾錄」을 소개하여 『일기』에 대한 연구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가진다.

『일기』의 본격적인 연구는 朴智鮮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의 「金昌業의 老稼齋燕行日記 研究」<sup>12)</sup>와 「老稼齋燕行日記의 書誌的 考察」<sup>13)</sup>, 「金昌業의 老稼齋燕行日記」<sup>14)</sup> 등은 『일기』를 총체적으로 연구한 대표적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老稼齋燕行日記의 書誌的 考察」에서는 현존하는 『일기』의 판본을 조사하였는데 특히 국문본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며 후대 사행을 다녀온 문인층 뿐만 아니라 독자층이 확대되어 규방에서까지 폭넓게 읽혀졌다는 사실을 규명하고 있다. 위의 연구 성과를 심화시킨 것으로 보이는 그의 박사학위논문 「金昌業의 老稼齋燕行日記」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老稼齋가 청의 문인들과의 교류를 자세히 밝힘으로 한중 문화 교류에까지 확장시켜 고찰하였다.

李君善은 「老稼齋燕行日記의 서술시각과 수법에 대한 고찰」<sup>15)</sup>에서 『일기』에 대한 형식적인 연구에 중점을 두었는데 『일기』를 ‘遊記’의 한 형태로 파악하면서 문학적형상화에 중점을 두었다.

金亞利의 「老稼齋燕行日記 研究」<sup>16)</sup>는 서술방식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였다. 그는 전대의 글쓰기 관습 중에서 일기체, 유기체, 필기체를 중심적인 양식으로 수용하였고 또한 창조적으로 변용, 확장시켜 사행록 글쓰기의 地평을 확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俞在任은 「老稼齋 燕行日記에 나타난 對淸意識 研究」<sup>17)</sup>에서 『일기』를 텍스트로 삼아 18세기 조선 지식인들의 대청의식변화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는 金昌業

11) 金彰顯, 「老稼齋燕行錄에 대하여」, 소재영, 김태준편, 『旅行과 體驗의 文學』(중국편),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6.

12) 朴智鮮, 「金昌業의 老稼齋燕行日記 研究」, 『語文研究』 86, 1995.

13) 朴智鮮, 「老稼齋燕行日記의 書誌的 考察」, 『語文研究』 88, 1995.

14) 朴智鮮, 「金昌業의 老稼齋燕行日記」,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15) 李君善, 「老稼齋燕行日記의 서술시각과 수법에 대한 고찰」,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16) 金亞利, 「老稼齋燕行日記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17) 俞在任, 「老稼齋燕行日記에 나타난 對淸意識 研究」,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이 청의 선진문물을 올바르게 인식하려고 한 대청의식의 변화에 주목하여 金昌業의 사상이 후대에 계승되어 실학파의 탄생에 일조를 하게 된 점을 밝혔다.

金泰俊은 「燕行錄의 教科書 老稼齋燕行日記」<sup>18)</sup>에서 삼가연행록의 체제적 특징, 그리고 『일기』에서 드러난 유람일기로서의 특징을 밝히고 연행록의 전통에서 『일기』가 지닌 가치를 밝혔다.

金相助는 「金昌業의 老稼齋燕行日記 研究」<sup>19)</sup>에서 「熏籠錄」에서는 반청의식을 견지하고 있지만 『일기』에서는 청에 대한 의식을 돌이켜보고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자각한 老稼齋의 생각은 당시의 일반적인 것과는 다름을 밝혔고 전반적으로 볼 때 『일기』에는 청에 대한 적개심이 「熏籠錄」에서처럼 노골적이고 감정적이지 않음을 밝혔다.

『일기』에 대한 연구는 중국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주로 老稼齋의 대청의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全美子は 「金昌業燕行日記中的中國形象」<sup>20)</sup>에서 『일기』에 나타난 청인의 이미지에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표현된 점과 통치자에 대한 서술의 긍정적인 변화에 주목하였다.

楊蕾蕾는 「老稼齋燕行日記가 그린 청나라-청나라의 생활문화를 중심으로」<sup>21)</sup>에서 중국인의 입장에서 老稼齋가 생활문화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청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밝혔다.

于淼는 「18세기 조선문인의 청나라에 대한 인식연구-燕行錄에 나타난 華夷思想 및 北學思想을 중심으로」<sup>22)</sup>에서 老稼齋 『일기』와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텍스트로 華夷思想의 영향을 받은 金昌業과 北學思想의 영향을 받은 박지원이 청에 대한 인식과 변화를 밝혔다.

魏紅은 「老稼齋燕行日記研究 -對淸意識을 중심으로」<sup>23)</sup>에서 청나라의 발전현황

18) 金泰俊, 「燕行錄의 教科書 老稼齋燕行日記」, 『국제한국학연구』 창간호,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2003.

19) 金相助, 「金昌業의 老稼齋燕行日記 研究」, 『영주어문학회지』 제10집, 2005.

20) 全美子, 「金昌業燕行日記中的中國形象」, 『中國研究』 제29권, 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02.

21) 楊蕾蕾, 「老稼齋燕行日記가 그린 청나라」, 『冠嶽語文研究』 제35집, 2010.

22) 于淼, 「18세기 조선문인의 청나라에 대한 인식연구-燕行錄에 나타난 華夷思想 및 北學思想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23) 魏紅, 「老稼齋燕行日記研究 -對淸意識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과 정치상황 그리고 『일기』의 문체적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대청의식이 강렬했던 金昌業이 그가 실제로 청나라에서 보고 느낀 것에 점차적인 인식 변화를 보이면서 현실을 직시하고 객관적인 서술을 하였으며 후세 연행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음을 밝혔다.

劉廣銘은 「老稼齋燕行日記」中的康熙形象 - 兼于同時期歐洲人語境中的康熙形象比較」<sup>24)</sup>에서 『일기』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형상을 출발점으로 金昌業이 본 만족과 한족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老稼齋燕行日記」中的滿人形象-兼于其中的漢族人形象比較」<sup>25)</sup>에서 金昌業이 본 康熙와 유럽의 사신이 본 康熙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左江은 「燕行錄全集考訂」<sup>26)</sup>에서 『朝鮮王朝實錄』과 『韓國文集叢刊』 등 역사저서와 비교하면서 정확히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였다. 이것은 『일기』 연구의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했던 점에서 국내 학자의 반성을 요구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상 연구사를 정리하면 『일기』에 대한 연구 작업은 주로 老稼齋의 생애와 문학관, 대청의식에 대한 연구, 『일기』의 글쓰기 방식, 기행산문으로서의 기술적 특징을 해명하는 연구, 『일기』의 문학적 가치와 역사적 지위, 후대 연행록에 미친 영향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夢窩에 대한 연구는 당시 그의 정치적 위상을 생각해본다면 지나칠 정도로 소략하다. 또 老稼齋에 대한 연구도 『일기』에 편중되어 있고 저자와 작품자체를 위주로 진행한 반면 이들이 처해 있던 시대배경과 가문의 요소, 정치적 위상 등을 결합하여 「堦簾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미하게 이루어졌다. 『일기』를 연구하는 몇 편의 논문에는 「堦簾錄」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老稼齋의 대청의식을 살피는 과정에서 인용된 경우가 있었지만 老稼齋가 『일기』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기록태도를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또 『일기』와 「堦簾錄」의 차이점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老稼齋는 『일기』에서 그의 견문을 비교적 객관적이고 담담하게 묘사하여 사실적 기

24) 劉廣銘, 「“老稼齋燕行日記”中的康熙形象-兼于同時期歐洲人語境中的康熙形象比較」, 『解放軍外國語學院學報』 2, 2006.

25) 劉廣銘, 「“老稼齋燕行日記”中的滿人形象-兼于其中的漢族人的漢族人形象比較」, 『延邊大學學報 (社會科學版)』 2, 2008.

26) 左江, 「燕行錄全集考訂」 張伯偉 編, 『域外漢籍研究集刊』 第四輯, 中華書局, 2008.

록에 치중한 반면 「熏篋錄」은 『일기』와 전혀 다른 면모를 보이며 그가 느낀 감정을 노골적이고 진솔하게 기록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차이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夢窩熏篋錄」은 「老稼齋熏篋錄」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였고 夢窩의 대청의식에 대한 연구도 초보적인 단계에 이르며 夢窩와 老稼齋의 「熏篋錄」시문에서 나타난 이들의 내면세계 및 차이에 대하여 비교분석한 작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熏篋錄」을 고찰하고자 한다.

## II. 『燕行熏簾錄』의 역사적 배경 및 金昌集과 金昌業의 생애

### 1. 淸의 발전과 朝鮮과의 관계

夢窩 형제가 중국에 간 당시의 청나라는 만주족이 중원정권을 장악한지 거의 70년이 되고 제4대 康熙帝가 재위한지도 51년이 된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청나라 康乾盛世 전기지만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문화적으로도 『古今圖書集成』의 출판을 비롯하여 번영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선교사들을 통해 서양의 천문지리학 등 새로운 학문과 여러 가지 기술을 받아들여 과학기술적으로도 일정한 성취를 거두고 있었던 시기였다.

康熙王朝는 명청교체기를 잇고 있어 사회가 혼란스럽고 내우외환을 겪었으며 경제의 불황과 국민의 피폐가 심한 상황이었고, 백여 년의 안정과 국가의 통일, 경제적 번영과 민생의 여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성세를 열어준 사회발전의 중요하고 특수한 시기였다. 康熙王朝 60여 년 동안 청나라 사회의 기본면모가 거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국가정책과 민생의 근본에 관계되는 정책, 또는 이로 인해 이루어진 농업 상공업의 발전과 필연적 관계가 있다.<sup>27)</sup>

康熙王朝는 농업생산을 회복하고 발전하기 위하여 사회경제발전에 유익한 수 많은 정책을 실시했다. 康熙帝는 圈地令을 영원히 폐지하고 황무지의 간척을 격려하는 시책을 제정했으며 황하, 회하의 치수사업을 실시하여 중기 이후에 전란에서 파괴된 농업과 수공업, 상업이 점차 회복되었다. 형제가 연행한 해인 1712년에 康熙帝는 ‘인구가 늘어나도 세금을 늘리지 않겠다’<sup>28)</sup>고 한 조서를 반포하여 인구의 제한에 따른 稅의 부담을 줄이기도 하였다.

康熙王朝는 농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수공업의 회복을 촉진시키는 제도를 실시하였다. 공업자의 엄격한 노동의무를 銀으로 대신하여 정기적으로 조정에 납부하는 제도(工匠代役銀)를 土地稅안에 합병시켜 징수하게 하여 점차 폐지하였다.

27) 위홍, 앞의 논문 p.122.

28) 『淸聖祖實錄』 卷249, “盛世滋丁,永不加賦”.

그래서 수공업자가 봉건국가에 대한 依附관계가 더욱 느슨하게 되었다. 일반 공장에서 주인을 위해 일하는 고용노동자들도 그 주인과 같이 식사하는 등 主僕의 구분이 없다. 이것은 청나라의 수공업자, 상인과 수공업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가 전보다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민간수공업자들에 대한 제한에도 어느 정도 관대하였는데 이는 상공업의 발전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농업과 수공업의 발전에 따라 도시의 상업도 번영하였다.

1627년 汗位를 계승한 皇太極은 3만 명의 군대를 인솔해 조선을 침입하였으며 강압적으로 兄弟之盟을 맺었다(丁卯胡亂). 1636년에 皇太極은 청나라를 건립하고 같은 해 12만 군대를 거느리고 다시 조선을 침입하였다(丙子胡亂). 남한산성에서 50여 일간 항전하는 동안 조정에서는 항전을 주장하는 斥和論과 현실을 받아들여자는 主和論이 맞서고 있었지만 결국 인조는 主和論을 선택하여 청의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신하의 예를 하는 치욕을 당하였고 昭顯世子와 鳳林大君이 인질로 끌려가는 비운을 맞게 되었다. 1644년 청군은 중원으로 들어가 멸망한 명나라의 뒤를 이어 새로운 통일 국가로서의 틀을 마련하였다.

청나라가 세워진 후 민족모순을 완화하고 통일 왕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통치자들이 명나라 때 會試에서 일률적인 성적순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입격자를 안배했던 제도를 이어받아 남북모순을 조화시켰다. 이로써 한편으로는 인재를 광범히 흡수하고 한편으로는 편벽지역의 정서를 고려해 나라 전체의 교육수준도 향상시켰다. 康熙제는 과거시험에서 사용한 八股文이 “공소하고 쓸 데가 없으니 실제로 정사와 관계가 없다(空疎無用, 實於政事無涉)”고 하여 1663년에 八股考試를 폐지하였다. 하지만 당시 科擧의 폐지를 반대하는 세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1668년부터 다시 회복시켰다. 康熙王朝 중반 이후부터 청나라는 상대적으로 번영하고 康乾盛世에 접어들었다. 가장 큰 변화로는 인구의 증가인데 康熙61년(1722)에 전국 인구가 1억을 넘겼다<sup>29)</sup>. 老稼齋가 도시의 상업의 번영을 직접 목격하고 『일기』에서 “마치 촌사람이 종로거리에 처음 온 듯 하였다”<sup>30)</sup>고 감탄한 것이 바로 이 시기였다.

29) 위홍, 앞의 논문 p.124-137.

30) 『일기』 12월4日 30면. “從前門而出,路上車馬闐焉.而兩邊列肆旗榜相映,百貨堆積,無非初見之物.左顧右盼,應接不暇,有似我國鄉客初到鐘街中”.

명이 완전히 멸망하고 심양에 인질로 간 昭顯世子와 鳳林大君이 돌아오면서 對淸復讎論과 對明義理論이 부각되었다.<sup>31)</sup> 조선은 아직도 명나라의 중화문화와 華夷思想의 영향 하에 있고 壬辰倭亂 때 명나라 군대의 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청나라 초기에 조선왕조 내에서는 尊明排淸의 구호가 계속된다. 鳳林大君이 후에 효종이 되면서 본격적인 이론적 틀을 형성하였고 조선은 오랑캐에 의해 정복된 중화를 대신하는 小中華 의식이 결성되었고 北伐論과 尊周論으로 이어진다.

18세기 초반부터 조선사회는 후기로 접어든다. 사회적으로 볼 때 ‘중세의 해체기’ 또는 ‘근대로의 이행기’로 파악되어 사회적 변혁의 여러 가지 징후가 나타남과 동시에 사상적 파동도 일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외부적으로는 청나라가 성세를 맞아 생산력의 증가와 사회의 발전을 이루었고 조선 지식인들의 계속되는 연행으로 인해 청의 발달된 문명을 보고 자각한 결과 내부적으로는 성리학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經世致用, 利用厚生적 실학에 대한 지향이 시대적 요구로 등장했다.<sup>32)</sup> 두 나라간의 왕래가 점차 밀접해지면서 조선 안에서는 北伐論을 대체해 北學思想이 주장되었다. 北學派는 조선의 낙후한 정세를 바로 잡기 위해 청나라의 선진문물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나라 또한 명나라의 폐쇄정책을 계승하지만 이 시기 조선과의 교류는 여전히 빈번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교류의 중심에는 사신들이 있었고 조선의 사신들은 왕래를 통해 청의 문화를 전파했으며 서양문화 특히 자연과학 방면에서의 기술을 조선에 전파해 조선사회의 발전에 큰 도움을 제공하였다.

夢窩 형제가 연행하였던 1712년 당시 조선에서는 對明義理論과 北伐論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으며 당대 대다수의 지식인들은 이러한 인식의 틀을 벗어날 수 없었다. 이들은 한족의 왕조인 명이 멸망하고 異民族인 청이 조선을 굴복시켰음은 물론이고 천하의 지배자까지 되었다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지식인들은 표면으로는 청에게 사대의 형식을 취할 수 밖에 없었지만 내면적으로는 尊明思想의 小中華主義的 자존의식이 어느 시기보다 강렬하였다. 더욱이 김씨 형제는 인조 때 斥和派 인물이었던 金尙憲 집안의 후손이고 老稼齋는 北伐論자였던 宋時烈의 문하에서 수학했던 만큼 연행 이전 이들의 대청

---

31) 유제업, 앞의 논문 p.10.

32) 위홍, 앞의 논문 p.1.



의식은 전형적인 對明義理論者의 범주에 속했다고 할 수 있다.

## 2. 金昌集과 金昌業의 생애와 「燕行熏篋錄」의 배경

夢窩와 老稼齋는 壯洞金門 출신으로서 이들의 대청의식은 가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壯洞金門은 조선전기에는 미미하였다가 조선 후기에는 최대의 勢道家門이 되었다. 17세기 중반이후에는 壯洞金門 중에서도 金尙憲 가계가 부상하였다. 壯洞金門이 당대 최고의 명문으로 자리를 굳히게 된 것은 丙子胡亂을 전후하여 斥和論을 주장한 金尙憲과 殉節한 金尙容 형제 이후이다. 두 사람의 행적으로 인해 壯洞金門은 척화의리를 상징하는 가문이 되었고 金尙憲의 후손들은 중앙정계에서 척화의리를 관철하려 하였다. 壯洞金門은 서인, 노론을 대표하는 가문으로서 남인, 소론과 같은 정파의 사상적 불철저성을 비판하였다. 척화의리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절의 정신으로 무장한 이들 가문은 金壽恒, 金昌集 부자가 영의정을 지내며 봉당정치의 핵심으로 부각되어 金壽恒은 1689년에 己巳換局으로 사사되고 金昌集은 1722년에 辛壬士禍로 사사되는 파란을 겪기도 하였다. 그 뒤를 이어 金昌集, 金昌協, 金昌翁, 金昌業, 金昌緝, 金昌立 등 이른바 ‘六昌’으로 이어지는 가계는 道學과 文章에 힘을 써서 절의와 도학 그리고 문장을 겸비한 조선조 최고의 명문거족이란 명성을 누렸다.<sup>33)</sup>

夢窩의 육형제는 18세기 낙론학풍을 주도하였는데 노론사대신의 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진 첫째 夢窩 金昌集은 높은 관직에 오른 노론의 유명 정치가였다. 둘째와 셋째인 金昌協과 金昌翁은 조선후기의 사상과 문학을 이끌었다고 평가되는 문인들이다. 六昌의 넷째에 해당하는 金昌業은 학계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金昌業이 세간의 관심을 받은 것은 그가 만년에 저술한 『일기』 덕분이었다.

壯洞金門의 도학과 문장이 나라의 으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金尙憲이래 표면적으로는 대청 적개심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중국 문물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교류한 데서 기인한 바가 컸다. 金昌協과 金昌翁을 존중했던 李德懋

33) 이경구, 「17-18세기 壯洞 金門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p.1-2.

(1741-1793)는 壯洞金氏 집안의 인재들이 으뜸이 된 것은 대대로 중국을 좋아하고 견문을 넓힌 데서 연유한 것<sup>34)</sup>이라고 하였다. 즉 壯洞金氏 일문이 갖춘 높은 식견과 학문이 연행체험을 통해 확장된 것임을 말하고 있다.<sup>35)</sup>

실제로 金尙憲 이래 이들 일문에서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행한 것은 20차례, 17명에 이를 정도로 특별한 전통이 되어 있었다. 이들 형제보다 앞서 1598년 金尙容이 聖節使로 金尙憲이 1626년 賀聖節兼陳奏使로 명에 사행하여 壯洞 일문과 중국과의 관계를 열었다. 丙子胡亂 후 金壽恒이 1653년에 三節年貢使, 1673년에 謝恩兼三節年貢使로 두 차례 연행하였고 1680년에는 夢窩의 중부인 金壽興이 謝恩告訃兼三節年貢使로 북경을 다녀온 바 있다. 金嘉鎭이 종사관으로 간 것까지 200년 넘게 지속되었다. 다른 어떤 가문과도 견줄 수 없는 壯洞金門만의 문화 전통이라 이를 만한 것이다.<sup>36)</sup>

壯洞金門에게 중국문물에 대한 관심과 수용은 정신적 자산의 하나였다. 하지만 무비판적인 수용은 아니었다. 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가 확립된 17세기 중반 이후 尊周義理를 마주한 壯洞金門 인사들은 청 문물이 華夷의 양면을 가진 것에 대해 조심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청 중심의 질서에 대한 부정이 내재해 있었으나 壯洞金門의 문물교류를 李德懋가 적극 평가한 점에서 北學派에 미쳤던 영향을 감지할 수 있다. 壯洞金門의 창조 문물 수용 논리는 尊周義理的 사고가 北學的 사고로 전환하는 접점에 위치해 있다고 할 것이다.

老稼齋는 청에 대한 적개심을 떨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일기』에서 吳三桂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서술을 하였다.

“세상에서 삼계가 관문을 열어 청병을 받아들인 것을 죄로 삼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 당시로 보면 황성이 이미 함락되고 황제는 순사하여 천하는 벌써 망하였는데 삼계 홀로 관문을 보존하려 한들 되겠는가! 이자성에게 깨뜨려지지 않으면 청병에게 깨졌을 터이니 당시의 형세로 보아 그것은 결코 삼계의 주장 탓은 아니

34) ‘農巖三淵慕中國’ 『靑莊館全書』 卷35, 「清脾錄」 卷4, “自清陰以來百有四五十年,金氏文獻甲於東方者,未必不由於世好中原開拓聞見. 遺風餘音,至今未泯也”.

35) 이경구, 앞의 논문 p.206.

36) 윤경희, 앞의 논문, 「燕行壘麈錄 小考」 p.351.

다. 또 이자성의 죄는 명나라 신하된 자면 누구나 마땅히 그를 불공대천의 원수로 토죄해야 한다. 삼계가 기왕 깨질 관을 포기하고 군부의 원수를 갚았으니 의는 지켰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삼계가 완전한 의를 지켜 청병과 힘을 합하지 아니했던들 끝내는 이자성에게 패했을 것이며 따라서 자연 청병이 산해관을 입수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나 아버지 오양이 죽은 뒤에 따라서 죽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으니 이것만은 삼계의 죄다”.<sup>37)</sup>

吳三桂는 산해관을 열고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여 만주족이 중국천하를 지배하도록 한 인물이다. 그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부정적이었으나 老稼齋는 이러한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랐다. 그는 당시의 명나라는 李自成에 의해서든 청에 의해서든 어차피 망할 나라로 보았다. 吳三桂가 관문을 열지 않았더라도 결국은 청병이 자력으로 들어왔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버티다가 李自成에게 패했다면 천하에 아무런 이로움도 없었을 것이라고 한다. 老稼齋는 청의 지배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미 명에서 청으로 바뀐 사실을 외면하려는 당시 사대부의 일반적인 정서와 달리 老稼齋가 이런 서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 매우 파격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일기』를 객관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청의 실상을 견문하고도 외면하는 기존의 사행기록과 달리 老稼齋는 『일기』에서 청나라의 도시의 변화함을 그대로 묘사하였고 청나라 황제의 검소함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였으며 사행 전에 들었던 것과는 다른 이미지임을 서술하기도 하였다. 이런 인식이 북학적 사고에까지 이르지 못하였지만 존주의리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堦簾錄」을 검토하기 전에 「堦簾錄」의 두 저자 중 金昌集의 생애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金昌集은 六昌의 맏이로 태어났으며 號는 夢窩, 諡號는 忠獻이다. 金尙憲의 증손이며 金壽恒의 첫째 아들로 老論四大臣의 한 사람으로서 숙종, 경

37) 『일기』 12月19日 52면. “世或以三桂開關納清兵爲罪,此不然也,當是時,皇城已陷,帝殉社稷,天下亡矣,三桂雖欲獨保關門,得乎,其勢不破於自成,則破於清兵,不由三桂主張也,且自成之罪,爲大明臣子者,所宜不反兵而討者也,三桂棄必破之關,而復君父之讐,倉卒處義,可謂得矣,若使三桂徒守一切之義,不與清兵並力,則必竟見破於自成,而清兵亦不入關矣,天下事亦何益哉,但襄死而三桂死,則善矣,而不能死,此三桂罪也”.

종연간 정치사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다.

夢窩는 1673년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그러나 바로 벼슬길에 나가지 못하고 1681년 내시교관이 되어 처음으로 출사하였다. 1684년 장악원주부, 공조좌랑에 임명되고 9월 정시문과에 을과로 합격하여 예조좌랑과 전적을 역임하였다. 1689년 병조참의에 임명되었으나 2월에 己巳換局으로 金壽恒이 진도로 유배되었다가 사사되자 夢窩는 永平 白雲山에 들어가 1690년 送老菴에 머물었다.

1694년 甲戌獄事때 부친 壽恒 형제의 관직이 복구되고 그는 병조참의 등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1703년 모친상을 당하여 3년 상을 치른 뒤 1705년 돈녕부지사가 되었다. 1706년에는 한성부판윤, 우의정이 되었으나 탄핵을 받아 상소한 뒤 낙향하여 평구에서 夢窩를 짓고 살았다. 1712년에는 동지사겸사은사로 청나라에 다녀왔고 1717년 영의정에 올랐다. 1720년 숙종이 승하한 뒤 왕위에 오른 경종이 병약하고 후사가 없었으므로 1721년 노론 대신들과 의논하여 왕세제의 책봉을 상소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왕세제의 대리청정이 이루어졌으나 경종의 친정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소론과 등에 의하여 대리청정이 취소되자 관직에서 물러났다. 이어 辛壬土禍가 일어나자 거제도도 유배되었다가 1722년 무옥이 일어나 서울로 환송되던 도중 성주에서 사사되었다. 1724년 영조가 즉위하자 1725년 관직이 복구되고 1778년 영조의 廟庭에 배향되었다. 과천의 四忠書院, 거제의 盤谷書院에 제향되었다. 문집은 1758년 손자 金元行이 洪鳳漢의 도움을 받아 간행되었다<sup>38)</sup>. 저서는 『國朝自警編』, 『五倫全備諺解』 등이 있고 문집으로는 『夢窩集』이 있다.<sup>39)</sup>

관력이 화려했던 夢窩와 달리 金昌業은 그의 號 稼齋가 의미하는 것처럼 松溪에 물러나 전장을 다스리며 별다른 벼슬은 하지 않고 일생을 마쳤다. 그러나 그의 『일기』가 4대 연행록의 하나로 평가를 받고 연구되면서 오히려 夢窩에 비하여 일찍부터 주목을 받았다. 老稼齋는 태어날 때부터 천성이 총명하였으며 어려서부터 문사에 능통하였고 특히 시를 잘 지었다. 만년에 만형 金昌集의 지위가 높아지자 도리어 불안감이 더 하여 아들이 대과에 오르는 것을 막기까지 하였다.

老稼齋는 7세(1664년)때 金尙憲의 막내 동생 金尙宓 집안이 절손되자 후사를

38) 「後序」, 『夢窩集』 3면.

39) 김남기, 앞의 논문 p.349-351 참조.

있기 위해 양자로 들어갔다. 그는 24세 때인 1681년(숙종 7)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집안이 성한 것을 경계하여 대과를 포기하였으며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1712년 54세 되던 해 金昌集이 冬至使兼謝恩使로 청나라에 갈 때 子弟軍官의 신분으로 함께 따라 나섰다. 松溪에서 조용한 전원생활을 하던 金昌業에게 연행의 기회가 온 것이다. 비록 打角의 신분이지만 그는 서슴지 않고 따라 나섰다. 연행 후 그는 다시 은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의 생활은 다시 정치적 격변으로 인해 파괴된다. 1721년 金昌集이 老論四大臣으로 지목되어 거제도도로 귀양가자 평생을 의연한 자연인으로 살고 싶어 하던 老稼齋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병석에 누웠다. 만형 夢窩와는 여러 형제 중에서 유독 그 우의가 깊었다. 『堽簾錄』에서 나타나는 형제애와 연로함에도 환로에 있는 형에 대한 애정을 읊은 작품을 보면 깊은 신뢰와 그에 대한 존경을 알 수 있다. 정변의 와중에서 아버지 金壽恒이 비참한 죽음을 경험한 老稼齋에게 형의 유배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결국 老稼齋는 병이 악화되어 64세로 생애를 마감하게 된다. 저서로는 『일기』가 있고 시집으로는 『老稼齋集』이 있다. 그림에도 뛰어난 재주를 보여 그의 그림으로는 秋江晚泊圖, 후인이 轉寫한 華陽書院의 宋時烈 77歲像 등이 남아 있다.

### Ⅲ. 「燕行熏簾錄」의 세계

#### 1. 「燕行熏簾錄」 개관

燕行이란 중국의 연경으로 사행함을 뜻하는데 고려, 조선과 元, 明, 淸 사이의 교섭을 담당한 외교사절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은 중국 수도를 사행하면서 공식적으로 진행한 방문일정과 노정 및 북경에서의 견문과 감상 등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기록물은 燕行錄으로 통칭되고 있다. 그러나 원나라 때의 기록물은 實王錄, 명나라 때의 기록물은 朝天錄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 많고 청나라 때의 기록물은 燕行錄이라고 명명되었다. 燕行錄은 고려부터 조선왕조까지 칠백여 년 동안 왕명에 의해 중국에 가서 외교 임무를 수행하는 문신들과 수행원들이 보고 들은 것을 비교적 자유롭게 기록한 글을 가리키는데 일반적으로 조정에 올린 공식적인 사행문서를 제외한 개념으로 사용된다.<sup>40)</sup>

燕行錄의 종류는 朝天錄보다 많고 다양한데, 형식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연행 사신이 기록하는 臚錄이 있는데 연행 이후 조정에 의무적으로 기록하여 제출하는 燕行錄으로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기록물인데 매 회 연행마다 臚錄이 저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연행을 하는 사신 무리에서 개인적으로 기록하는 燕行錄이 있다. 그러나 아무나 燕行錄을 저작했던 것은 아니고 능숙한 솜씨가 있는 문인이 기록한 것이다. 이것은 臚錄보다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저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적인 燕行錄에는 연행 동안의 여정, 연경에 체류하는 동안 있었던 일, 체류기간의 견문, 서적교환, 청 문인과의 교류 등 여러 가지 일들과 개인적인 유람기 등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고 연행 동안 기행과 견문의 느낀 바를 서사시 또는 서정시로 엮어 놓은 것이 있다. 그리고 한문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한글본으로 전하는 것도 있다. 한글본은 한문본을 번역한 것이라 볼 수 있지만 또한 사대부 등 지식인 계층

---

40) 위홍, 앞의 논문 p.1-2.

에만 한정되었던 독자들이 확대되었다는 것도 의미할 수 있다.<sup>41)</sup>

丙子胡亂 이후 조선에서는 해마다 청에 대해 사신과 일정 정도의 조공물을 보냈으며, 나라의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도 사신을 보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는 외적으로는 사대외교를 표방하였지만 내적으로는 이와 정반대의 양상이었다. 한편으로는 명이 멸망하고 청으로 바뀐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丁卯胡亂과 丙子胡亂의 후유증이 심했기 때문이다. 사행을 다녀오면서 쓴 기행문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데 명나라 때 다녀온 후에 쓴 사행기록은 朝天錄이라 하였다. ‘朝天’이란 천자에게 조회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청은 한인이 아닌 만주족이고 丙子胡亂을 일으킨 민족의 나라로 청을 천자의 나라로 인식하지 않았기에 燕行錄이라고 한 것이다. 당시 사행인 연행은 당대의 정치적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sup>42)</sup>

어떤 燕行錄이든 당시 청의 실정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들은 당시 청 황제가 언론에 대한 탄압이나 사사의 통제, 가혹한 현상 등 일부 현상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청의 선진문물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도 하였다. 그것은 중국 역사상 최대로 영토가 확장되고 국제평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부정부패가 적고 국가 재정이 풍부한 점 등 역대 왕조에서 보기 드문 선정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청나라가 상공업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룬 점에 대해서도 공통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농업에 있어서도 대규모 방목에 의해 목축업이 성행하고 농업기술이 발전된 점 등을 주목하고 있다.

조선의 외교는 전형적인 사대외교였다. 朝貢關係는 고려시대부터 볼 수 있는데 고려의 조공은 遼, 金, 元 등과 이루어졌다. 이후 조선 초에는 명과 전형적인 朝貢關係를 유지하였는데 조공은 물품의 貢收뿐만 아니라 활발한 使臣의 왕래도 있었다. 명 이후 청나라와도 이와 같은 외교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청과 조선간의 宗藩關係는 1637년에 丁丑約條를 始發點으로 하여 1835년까지 257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처음에는 1년5절(萬壽, 中宮千秋, 皇太子千秋, 冬至, 元旦) 이었는데 나중에는 萬壽, 冬至, 元旦 三大節을 합병시켜 한꺼번에 冬至使만 보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歲幣年貢도 節使가 휴대하게 하여 원단 전

41) 유재일, 앞의 논문 p.11-12.

42) 박지선, 앞의 박사학위논문 p.70.

에 바치도록 하였기 때문에 節使의 전칭은 “進賀冬至，正朝，萬壽三大節兼歲幣使”였다. 이것은 규모가 가장 큰 조선 사절단인데 인원수가 일반적으로 300명을 초과하고 대량의 진공물품과 무역물자가 뒤따랐다. 그러나 임진년 사행의 규모는 총인원 541명, 마필 435두였다. 이것은 전례 없이 큰 규모의 연행기록이었다고 한다. 魏紅은 그의 논문에서 이번 사행이 이렇게 많은 인마가 동원된 이유를 崔德中의 『燕行錄』으로 밝혔다.<sup>43)</sup>

“아! 옛날 병자년(1636) 국가의 대운이 좋지 않아 오랑캐들이 침략하여 강도가 함락되고 임금이 성을 나가 항복하였으며 대군이 인질로 끌려갔다. 이로부터 연공이 정해지고 사신이 끊이지 않았다. 갑신년(1644)이 되어 명나라가 망하고 신기가 (오랑캐에게) 주어졌으니 하늘의 뜻이 믿기 어려운 것을 차마 어떻게 말하겠는가. 이로부터 동지 정조 천추사가 가지고 갔던 예물을 모두 한 사신으로 합쳐서 ‘절사’라고 하여 한 해의 시작을 나타냈다. 임진년(1712) 청나라가 백두산에 돌을 세워 국경을 확정하는 비석을 세우고 예단을 줄여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조공 예물을 조정하였다. 조공금을 없애고 표범 가죽을 감하였으며 변방에 사는 백성들이 국경을 넘어도 조사를 면하게 하였다. 이 네 가지 일은 또 四起를 갖추어 절사에게 사은사를 겸하도록 특령을 내렸다”.<sup>44)</sup>

이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청으로의 연행은 정기적인 신년 賀禮와 국가대사에 대한 외교목적으로 나눌 수 있다. 형제가 연행을 간 것은 당시 청과의 외교적 네가지(淸國立石白山，審定境界，許減禮單，移准方物，既革貢金，又減豹皮，邊民犯越，免其查議) 부정기적인 일과 새해에 賀禮를 하기 위한 정기적인 일을 겸한 것이었다.

夢窩 형제는 1712년에 연행길에 올랐는데 夢窩는 冬至使兼謝恩使였다. 夢窩가 공식적인 사절이었던 데에 비하여 老稼齋의 연행은 그와 다른 子弟軍官으로서였다. 이들의 증조부인 淸陰 金尙憲의 문집에는 당시 명나라를 사행하면서 기록한

43) 위와 같은 논문 p.35.

44) 崔德中, 『燕行錄』序. “噫, 昔在丙子, 大運將否, 胡騎憑凌, 江都失險, 翠華下城, 大君爲質, 年貢始定, 信使相續. 退至甲申, 明統已墮, 神器有畀, 天意難諶, 忍何言哉. 自此以後, 冬至, 正朝, 千秋方物, 都付一使, 名曰節使, 及呈歲首. 壬辰之年, 淸國立石白山, 審定境界, 許減禮單, 移准方物, 既革貢金, 又減豹皮, 邊民犯越, 免其查議, 以此四件, 又備四起, 特令節使兼其謝恩”.



「朝天錄」<sup>45)</sup>이 있으며 이와 성격이 약간 다르지만 청과의 항전을 주장하다가 심양에 3년동안 잡혀있던 기록인 「雪窠集」, 「雪窠後集」, 「雪窠別集」<sup>46)</sup>이 있다. 또 부친인 文谷 金壽恒에게도 청의 두 번의 사행을 통해 기록한 「癸巳日記」<sup>47)</sup>와 「癸丑日記」<sup>48)</sup>라는 燕行錄이 있다. 이 밖에도 金昌業은 가끔 자기가 읽었던 여러 연행록의 기록과 자기가 실제 눈으로 목격하는 장면과의 異同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평소부터 청나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식견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sup>49)</sup> 그렇기 때문에 평소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비록 子弟軍官의 신분이었지만 연행길에 오른 것이다. 그는 귀국길에서 일행과 떨어져 별도로 醫巫閭山을 관광하는 등 연행길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나섰다.

조선에서 청으로 가는 노정은 상당히 엄격히 통제되고 있었다. 형제가 사행하던 康熙시기는 청이 초기의 국가수립 체제에서 벗어나 상당히 안정되고 문치가 융성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오는 사신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하고 있었다. 조선의 경우에도 청으로 들어오는 길은 청에서 지정해준 노선만 가능하였다. 또 청의 문인과의 교류에도 엄격하여 심지어 문인들의 문답도 제한하였다.<sup>50)</sup> 이러한 것들은 명나라의 경우에서 교훈을 얻은 청의 통치 방법이었다. 명나라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사신의 왕래와 국경지역의 교역을 통해 회유하였는데, 이것은 주변 나라의 재정에 큰 보탬이 되었고 명나라의 기밀이 유출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하면 명나라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 정보 통제라는 측면에서도 불이익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청에서는 건국 초부터 주변 나라의 사신교류를 엄격히 통제하였다.

夢窩와 老稼齋가 동행한 이 사상 최대 규모의 사절단 일행은 임진년인 1712년 11월 3일 서울을 떠나서 26일 압록강을 건너 12월 27일 북경에 도착, 46일간 머무르다가 계사년인 1713년 2월15일에 회정하여 3월13일 압록강을 건너 30일 서울에 되돌아오기까지 왕복 5개월, 날수로 146일이고 왕래한 거리가 3천19리, 老稼齋가 별도로 유람한 거리가 653리가 되었다.

45) 1626년에 聖節使로 명에 다녀온 기록.

46) 『淸陰集』 卷11-13.

47) 1653년에 冬至使 書壯官으로 淸에 다녀온 기록.

48) 1673년에 謝恩使로 淸에 다녀온 기록.

49) 『일기』 해제.

50) 유재임, 앞의 논문 p.20.

夢窩 형제는 이 때의 여행체험을 「燕行熏簾錄」이라는 이름의 시집으로 남겨놓았으며, 이밖에도 老稼齋는 산문 기록인 『老稼齋燕行日記』도 남겼다. 이중 「熏簾錄」은 비록 형제간이기는 하지만 당대 정계의 거물이었던 사람과 재야의 인사가 여행을 같이 하면서 자신들의 소회를 표현한 것으로 상당히 흥미 있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특히 老稼齋의 여행은 조선 후기 여행사 중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老稼齋 이전의 조선 여행사는 중국에 가서도 중국의 실상을 애써 외면하였으며 귀국해서는 대청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당시 시대에 영합하였다. 이에 비하여 老稼齋의 경우 「熏簾錄」에서는 당시 일반적인 경향과 같이 적개심이 드러나지만 『일기』의 경우에는 이것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청나라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있어서 훗날 北學派 실학자들의 대청 의식에서 선각적인 단초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熏簾”란 『詩經』 「小雅」의 ‘何人斯’에 나오는 단어이다. 질나팔인 熏과 젖대인 簾는 화음이 잘 어울어지는 악기로 형은 질나팔을 불고 아우는 이에 화답하여 젖대를 분다는 뜻으로 형제간의 화목한 우애를 의미한다.<sup>51)</sup> 이들 형제가 자신들의 여행시집을 「熏簾錄」이라 명명한 것은 여행 과정에서 형제가 시를 통해 우애를 돈독히 했다는 뜻이다. 夢窩 형제는 5개월에 걸친 여행 기간 동안 침식을 같이 하면서 동일한 시제로 시를 주고 받으며 熏簾의 시간을 갖는다.

「夢窩熏簾錄」에는 총 197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자신의 시 118수, 老稼齋의 시 77수, 셋째 金昌翁<sup>52)</sup>과 다섯째 金昌緝<sup>53)</sup>의 시 각 한 수씩 있다. 그 중에서 70수는 五言詩이고 나머지는 전부 七言詩이다. 夢窩의 시 118수 중에서도 35수의 시는 선조의 시를 차운하였고 17수는 아우 老稼齋의 시를 차운 또는 화답하였고 20수는 杜甫의 秦州雜詩, 4수는 李世白<sup>54)</sup>의 시를 차운하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夢窩熏簾錄」에 수록된 老稼齋의 시 77수에는 「老稼齋熏簾錄」에 빠진 39수의 시가 포함되어 있는 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夢窩集』이나 『老稼齋集』 어디에도 없다. 그것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老稼齋集』 또는 그의

51) 윤경희, 앞의 논문, 「燕行熏簾錄 小考」 p.352.

52) 시에는 字 子益으로 나와 있다.

53) 시에는 字 敬明으로 나와 있다.

54) 金尙憲의 외증손. 시에는 그의 號 北溪로 나와 있다.

「堧簾錄」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흥미 있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堧簾錄」은 夢窩의 것이나 老稼齋의 것이나 편집자의 편집이 있었는데, 정작 당사자의 문집에 빠져 있는 시가 39수나 형의 시집에 실려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하나의 과제임이 분명하다.

「夢窩堧簾錄」에는 부친 金壽恒의 여행시를 차운한 시가 많이 수록되었다. 1673년 金壽恒이 연경에 다녀왔는데 40여년의 시간이 지나 형제가 다시 이 길을 가게 된 것이다. 형제는 부친의 시에서 운자를 같이 하여 부자간의 혹은 형제간의 체험을 공유하였다. 그 체험 중에는 선조를 회고하고 그의 가문으로부터 양성된 정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였다.

「老稼齋堧簾錄」에는 본인의 시만 137수가 실려 있는데 그 중 46수는 夢窩의 시를 차운 또는 화운하였고, 부친 金壽恒의 시에 23수, 金錫胄<sup>55)</sup>의 시에 5수, 셋째 金昌翁<sup>56)</sup>의 시에 1수, 李世白<sup>57)</sup>의 시에 1수를 차운하였다. 이밖에도 老稼齋의 차운 범위는 다양하여 청나라의 지식인 李元英<sup>58)</sup>의 시에 3수, 명나라 여인 季文蘭의 시에 1수, 당나라의 시인 高適의 시에 1수를 차운하였는가 하면, 여정에서 본 角山寺 비문의 시에 1수, 龍泉寺 벽의 운에 1수, 練光亭의 운에 1수를 차운하였다. 137수 중에서 50수는 五言詩이고 나머지는 전부 七言詩이다.

「老稼齋堧簾錄」에는 부친이나 형의 시를 차운한 것이 반이 넘는다. 그러나 「老稼齋堧簾錄」에는 아버지나 형의 시는 실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시만을 수록하였다. 이것은 약간 의외의 느낌을 주기도 한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행의 정사였으며 영의정까지 역임한 형의 시집은 자신의 시만을 수록하고, 子弟軍官으로 따라가는 동생의 시집에는 차운한 형의 작품을 밝혀 신는 편이 더 자연스러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들 형제의 문집에 전하는 「堧簾錄」은 형제가 같이 여행을 하면서 주고 받은 시를 수록한 것인 만큼 형제간의 공감대, 동질성을 보이기도 하나 서로 다른 입장 차이에서 오는 다른 시각의 글을 볼 수도 있다.

「夢窩堧簾錄」 권두에는 金昌翁이 1720년에 지은 서문이 있고, 1712년 숙종이 사행을 전승한 뒤 지은 御製詩 두 편과 1721년에 李頤命이 지은 그 경위를 밝히

55) 시에는 號 息庵로 나와 있다.

56) 시에는 叔氏로 나와 있다.

57) 시에는 號 雲沙로 나와 있다.

58) 『일기』에서 자주 나타나는 인물인데 老稼齋와 많은 교류를 했다.

는 跋文이 수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숙종은 사행을 떠나는 대신을 전별하며 시 두 편을 지었으나 사행을 떠나는 金昌集에게 주지 않았다. 9년 뒤에 왕이 승하하고 숙종의 유고인 『紫宸漫稿』를 정리하던 李頤命이 御製詩를 찾게 되어 「夢窩熏簾錄」 앞에 실리게 되었다. 李頤命의 발문에서는 대신들이 듣는 이마다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지 않는 이가 없다고 하였다.<sup>59)</sup> 이러한 감격은 왕조 국가의 신하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

숙종의 시는 다음과 같다.

雪天辭闕赴燕都	눈 내리는 날 대궐을 떠나 연경으로 가게 되니
錦席初開酒滿壺	비단자리를 처음 펴고 술을 가득 채우노라
平日大臣恩遇別	평소에도 대신에 대한 은혜 남달랐으니
矧當餞慰禮應殊	하물며 전별자리니 예우가 더욱 특별해야지
此行上价弟兄偕	이번 사행은 형제가 함께 가는데
其所相須豈有涯	서로 의지하는게 어찌 끝이 있으랴
今歲壬辰周甲在	올해로 임진난이 두 번째 갑년을 맞이하니
山河觸目定傷痕 <sup>60)</sup>	보는 산하마다 회포가 많으리

추운 겨울날 사행을 떠나는 노대신을 위해 전별을 베풀어 특별히 예우를 갖추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특별한 예우는 전에 없었다고 하니 이들 가문에 대한 왕실의 배려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丙子胡亂 당시 남한산성에서 主和를 격렬하게 반대했던 金尙憲이 끝내 심양에 끌려가는 고초를 겪고 난 뒤 청음의 집안은 대청 적대감의 본가 같았다. 이후 북벌이 마치 국가의 공식적인 정책인 것처럼 되었지만 숙종과 김씨 일문은 여러 번의 갈등을 겪었다. 숙종즉위와 甲寅禮訟으로 宋時烈의 예론이 부정되고 서인이 정계에서 축출되면서 金壽恒은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원주, 영암, 철원 등으로 유배된다. 1680년 영의정으로 복귀되었다가 1687년 다시 체직되지만 이듬해 壽恒의 형 壽興이 영의정에 제수되고 金昌協이

59) 「御製驢章跋」, 『夢窩集』 50면 “聞者莫不流涕”.

60) 위와 같은 곳. ‘燕行時肅宗大王御製驢章 二首’.

대사헌으로 나가는 등 이들 가문이 정계 정점에 서게 된다. 그러나 1689년(숙종 15년)에 張淑媛의 아들로 세자 책봉을 하려는 숙종과 남인들에게 밀려 송시열 등 노론들은 삭탈관직하고 유배당하거나 사사되었다. 己巳換局이라고 하는 정쟁에서 金壽恒이 사사되자 六昌 형제들은 부친의 유계를 받들어 각각 은거생활을 한다. 이 환국으로 민비는 폐출되고 張淑媛은 정비의 자리에까지 오른다. 숙종 20년에 폐비 민씨가 복위되고 이를 반대하던 남인들이 실각하고 노론들이 복권되었다. 이른바 甲戌換局이다. 이 때 사사되었던 金壽恒도 신원되지만 그의 후손들은 한 동안 정계에 나가지 않고 학문에 침잠하기도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이들 가문의 일원에게는 단일한 사상적 기풍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夢窩에게는 남다른 감회가 있었을 것이다.

2수에서는 형제가 함께 사행길을 떠나는 것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임진년은 왜란이 일어났던 해이다. 그 왜란 때 구원병을 보내주었던 명나라는 이미 망해 없어졌고 이 나라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준 청은 강건한 제국이 되었다. 그리고 조선은 현실에 굴복하여 조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신을 보내게 된 것이다.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입을 벌리면 북벌을 이야기하던 조선의 왕에게는 특별한 감회가 없을 수 없었을 것이다. 왜적의 침략을 당한지 백년도 더 지나났지만 그 일은 잊을 수가 없는데 그런 해에 그보다 더 큰 치욕을 안겨준 청나라에 사신을 보내야 하는 것이다. 숙종은 이러한 복잡한 심사를 임진년이 두 번째 갑년이 되었다고 곱씹어 자신의 내면적 고뇌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숙종이 사신을 보내면서 쓴 이 전별시를 공개하지 못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훗날 御製詩의 존재를 알게 된 金昌集 또는 그의 집안에서는 무상의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夢窩의 동생이자 老稼齋의 형이었던 삼연 金昌翁은 「夢窩堦簾錄」序에서 그 영광을 이렇게 말하였다.

“신(金昌翁 : 필자)이 일찍이 시경을 읽을 때 ‘사목’ ‘황화’ 등의 시에 이르러 마음 속으로 주나라의 선왕들이 스스로 몸을 잘 낮추는 것이 후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감탄하였다. 이제 이번 일로 옛날과 비교해보면 마음을 어루만지고 노고를 말하는 것이 또 기갈이 든 사람에게 빨리 달려가고 집 밖에 있는 사람을 보살피는

것보다 더하니 또한 크고 두렵다고 하겠다. 선왕 때에 한후가 노제에 나가니 전송하는 사람은 덕이 큰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왕이 직접 자리를 마련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며, 중산보가 제나라에 가니 윤길보가 노래를 지었다고 하지만 왕이 직접 시를 지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여기에 비교해보면 그 은혜의 각별함이 옛날보다 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61)</sup>

형제는 국왕의 은혜에 감복하여 차운시를 역시 두 수 남겼다.

尙記街綸出漢都    수레를 끌고 서울을 떠나던 때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니  
承恩咫尺醉宮壺    은혜롭게도 임금님의 지척에서 내리신 술에 취했는데  
遺篇忽奉承雲後    돌아가신 뒤에 홀연 유편을 받으니  
感泣從前聖恩殊    남다른 성은에 감읍할 뿐이네

釋耒田間李也偕    가래를 놓고 밭 가는 것을 그만둔 동생과  
共辭京闕向天涯    함께 서울의 궁궐을 떠나서 하늘 끝으로 향하네  
九重耿耿尊周義    구중궁궐에서는 아직도 존주의리를 잊지 못하는데  
特軫山河感慨懷<sup>62)</sup>    수레가 지나가는 산하마다 감개를 품었네

夢窩는 자신이 정사로 연경에 갔던 때를 회억한다. 사행길을 떠나는 자신을 위해 전별연을 베풀어주신 임금님의 성은에도 너무 감격할 일인데 뒤늦게 御製詩의 존재를 알고 나니 더욱 마음이 아프다. 夢窩는 御製詩 중의 “今歲壬辰周甲在, 山河觸目定傷痕”를 읽고 임금님의 속깊은 배려를 깨닫는다. 임금님은 사행을 떠나기도 전에도 이미 자신의 입장을 헤아려 주고 지나가며 보는 산하마다 감회가 남다를 것을 예상하였다. 하지만 御製詩의 존재는 숙종이 승하한 뒤에 알려졌으니 夢窩는 감사의 마음을 표시할 기회조차 없었다.

임금님의 특별한 예우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며, 이들 사행길에 임금이 전별시를 적어 소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파격적인 대우였다. 夢窩의 시에는 길 떠나

61) 『堯麓錄序』, 『夢窩集』 48면. ‘臣嘗讀詩. 至四牧皇華等篇. 竊歎周之先王. 善能體下. 非後世之可及. 而以今況古. 其所探情而敘勞也. 又有出於馳驟饑渴眷顧室家之外者. 亦云孔厚. 且如宣王之世. 韓侯出. 祖餞者顯甫. 未聞王自設席. 仲山甫徂齊. 吉甫作誦. 未聞王有所賦也. 以此方之. 其恩數之夔異. 雖謂之掩前古. 可也.’

62) ‘伏奉燕行時御製二絕. 不勝感泣. 謹用其韻. 庸伸追賡之忱’ 『夢窩集』 72면.

기 전에 군주로부터 전별의 술을 받아 마시고, 세월이 지나 임금이 죽은 뒤 있었던 사실조차 몰랐던 御製詩를 받고 감읍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이 전별연 자리에는 정사인 夢窩 뿐 아니라 포의인 老稼齋도 있었다.

飲水行色向幽都 초라한 모습으로 연경에 향하는데  
前席同時醉御壺 임금님이 주신 술에 함께 취하였으니  
誰想九重珍劑降 궁궐의 귀한 약 주실 줄 누가 알았으랴  
布衣亦被聖恩殊 포의로 남다른 성은을 입었네

遠役燕都與伯偕 먼 사행길 만형과 함께 갔었는데  
山河風景恨無涯 산하의 풍경은 끝이 없어 한스러웠지  
宸情特軫行人事 임금님은 행인의 수레를 걱정하는데  
追觀奎章倍愴懷<sup>63)</sup> 임금님의 시편을 보니 배로 슬프네

老稼齋 역시 특별한 성은에 감격한다. 사행 전 打角 신분인 老稼齋 金昌業도 앞자리에 앉아 전별연에 함께 하였다. 변변한 벼슬도 없이 살다가 자재군관으로 따라가는 老稼齋에게는 정사를 보내는 전별연에 끼어 임금이 주신 술에 취하는 포의로 남다른 성은을 입은 감회는 남달랐다. 숙종은 사행단에게 궁궐의 귀한 술을 대접하고 특별히 납제까지 하사하였다. 老稼齋에게 있어 마시고 취한 것은 술이 아니라 먼 길을 떠나는 신하에게 내리는 약 바로 그것이었다.

## 2. 청에 대한 적대감

양 「堦簾錄」 전체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청에 대한 적대감이다. 명이 망하고 청이 중국 대륙을 지배하게 되자 조선의 지식인들은 깊은 절망감을 느꼈

63) ‘伏奉燕行時御製二絕.不勝感泣.謹用追廣’ 『老稼齋集』 101면.

다. 특히 척화파의 후손인 夢窩와 老稼齋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요동 땅에 들어서자 夢窩 형제는 청나라에 들어섰음을 실감한다. 요동은 많은 역사가 담긴 곳이니 이들의 감회 또한 남다르다.

一入遼沙眼界寬	요동땅에 들어서니 시야가 넓어지고
遙看白塔出雲間	멀리서 백탑이 구름사이로 솟은 것이 보이네
丁威化鶴今無處	정령위가 학으로 변했던 곳은 지금 사라졌는데
唐帝停鑾舊有山	당 황제가 수레를 멈췄던 옛 산은 남아 있네
東土幾年爲漢郡	동토가 얼마 동안이나 한나라의 고을이었던가
北庭千里是秦關	북정 천리가 진나라 국경이네
燕丹最有臨河怨	연나라 태자 단은 강에 대한 원한이 가장 많네
壯士如何去不還 <sup>64)</sup>	장사는 어찌하여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가

夢窩는 요동에 들어서자 요동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떠올린다. 요동 사람으로 靈虛山에서 도를 닦아 신선이 되었다는 전설속의 인물 丁令威, 고구려 정벌에 나섰다가 실패하고 돌아간 唐太宗. 요동은 이들의 전설을 안고 유구한 세월을 담고 있다.

이렇게 수많은 역사가 있었던 요동 땅이 지금은 청나라의 땅이 되어버린 현실을 한탄한다. 요동에서 夢窩의 생각은 秦始皇을 암살하려다가 실패한 연나라 태자 丹과 荊軻에까지 이른다. 荊軻는 연나라 태자 丹의 명을 받들어 秦始皇을 암살하려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요동 땅에서 살해당하고 돌아오지 못하였다. 荊軻가 죽음의 길을 떠나면서 易水가에서 연 태자와 丹과 술을 나누면서 비감 어린 이별을 하였다. 이 때 荊軻는 “장사가 한번 가니 돌아오지 못하는구나”<sup>65)</sup> 하고 노래하였다. 그는 이번의 행차가 일의 성패와는 관계없이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떠나는 것은 이번의 거사 즉 秦始皇을 암살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夢窩는 요동에서 그 일을 생각한다. 연태자 丹과 荊軻의 일에 맞추어보면 자신의 이번 행차는 청나라 황제의 척살길이어야 한다. 그런 대의명분과 반대로 자신

64) ‘遼東謹次先韻’ 『夢窩集』 60면.

65) “壯士一去兮不復還”.



은 청제에게 예물을 바치기 위하여 간다. ‘돌아오지 못하는’ 荊軻에 비하여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와야’ 하는 것이다. 그의 감회가 편할 리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난 장사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한다.

夢窩가 이렇게 실패만을 곱씹는 것은 아니다.

瀋陽城郭自逶迤	심양의 성곽은 절로 구비구비한데
往蹟依稀欲問誰	지난 자취 흐릿하니 누구한테 물으랴
漢雁中郎留澤日	한나라 중랑이 북해에 억류되었고
秦烏太子 <sup>66)</sup> 出關時	진오태자는 진관을 나섰네
百年菟血 <sup>67)</sup> 冤難沫	장홍의 백년 한은 씻기 어렵고
千古吳薪恨永遠	그 옛날 오왕의 와신상담하던 한은 영원히 남아있네
河上舊亭猶有址	강가의 옛 정자는 터만 남았으니
停車回首一於戲 <sup>68)</sup>	수레를 멈추고 고개를 돌려 탄식하네

이 시는 夢窩가 연경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심양을 지나면서 지은 것이다. 시의 말미에 “효종이 심양에 머물러 있을 때 혼하의 가에 정자를 지었는데 그 터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하는 注가 있다.<sup>69)</sup> 즉 효종을 떠올리면서 지은 시임을 말해준다. 별로 길지 않은 시에 蘇武, 진오태자 즉 연태자 丹, 菟弘, 臥薪嘗膽 등의 고사를 끌어들이고 있다. 이들은 모두가 적지에 잡혀가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돌아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수를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鳳林大君 즉 훗날의 효종도 그와 똑같이 볼모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는 三田渡의 수치를 씻기 위하여 북벌을 계획했던 사람이다. 앞의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졌던 夢窩는 鳳林大君의 자취가 남아있는 곳에서 이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말하면 鳳林大君이 설치를 꿈꾸었으나 이루지 못한 역사적 사실을 옛 정자는 터만 남았다

66) 秦烏太子: 燕나라 태자 丹. 태자단이 秦나라에 잡혀갔을 때 秦王이 “까마귀 머리가 희어지고 말에 빨이 나면 풀어주겠다(烏頭白馬生角奈可)”라고 하였는데 태자 단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자 까마귀 머리가 희어지고 땅을 굽어보며 탄식하자 말에 빨이 나서 진왕이 부득이하게 풀어주었다는 전설이 있다.

67) 菟血: 周나라 景王의 大夫였던 菟弘이 范中行의 난에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의 피가 푸른 빛을 띤 옥으로 변했다는 전설이 있다(菟弘化碧).

68) ‘瀋陽感懷’ 『夢窩集』 69면.

69) “孝廟留瀋時.就混河上作亭.尙傳其址”.

는 탄식으로 이를 상징하고 있다.

邦國遺羞尙忍論    나라의 수치를 차마 말할 수 없으니  
長河欲挽洗乾坤    은하수를 끌어다 천지를 씻었으면  
北庭持節懷先祖    북정에 부절을 갖고 오니 선조가 그립고  
西夏街綸媿后孫    서하에서 명을 받은 것이 후손에게 부끄럽구나  
冰雪窻邊遺跡味    얼음 덮인 구덩이엔 남은 흔적이 흐릿한데  
日星天下大名存    해와 별처럼 천하에 큰 명성 남아 있네  
警心皮幣來輸也    경계하는 마음으로 조공 온 곳에서  
暗旁氈裘掩涕痕<sup>70)</sup>    남몰래 전구로 눈물을 닦는다

夢窩는 심양에 와서 조선이 오랑캐에게 당한 치욕을 떠올린다. 그것은 말로 풀  
어낼 수 있는 가벼운 것이 아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은하수를 끌어다 천지를 씻고  
싶은 것이다. 그는 여기에서 丙子胡亂 당시 끝내 화친을 거부하다가 여기에 끌려  
와 곤욕을 치르고 그로 인해 절의의 상징처럼 된 증조부 淸陰 金尙憲을 떠올린  
다.

淸陰은 丙子胡亂 당시 척화를 주장하다가 조선이 항복을 하여 화친이 이루어  
지면서 후금에 끌려갔다 왔다. 1640년 청의 龍骨大 등이 조선에서 징발한 군대를  
교체한다는 명목으로 조선에 들어왔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에 내세운  
명분에 지나지 않았고 실제로는 청에 협조를 거부하는 여론을 조장하는 인물을  
색출하는 것이었다. 그 목표는 金尙憲이었다. 당시 “영남의 선비가 三田渡의 碑  
閣을 파괴하였다”는 소문이 심양에 떠 돌 정도로 그의 존재는 청을 자극하였  
다.<sup>71)</sup> 결국 金尙憲은 국내외적으로 정치적 반대가 엄존하고 와전된 소문들이 무  
성한 상태에서 생사가 불투명한 길을 다시 한번 떠났었다.<sup>72)</sup> 심양은 그런 아픈  
상처로 남아 있는 곳이다. 그곳에서 夢窩는 치욕을 안겨준 오랑캐에게 조공을 바  
쳐야 하는 일을 해야 했다. 나라의 사절로써 해야 하는 일임에도 夢窩는 이처럼  
자랑스러운 선조뿐만 아니라 후손에게도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70) ‘瀋陽感懷次北溪韻’ 『夢窩集』 60면.

71) 『인조실록』 18年 10月 30日 정축.

72) 이경구, 앞의 논문 p.82.

“雪窖”는 金尙憲이 후금에 끌려가서 쓴 시집의 이름이다. 얼음으로 뒤덮인 “遺跡”은 곧 증조부 淸陰의 흔적을 말한다. 선조가 수모를 겪었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에 다시 와서 복수는 꿈도 꾸지 못하고 조공을 바치려니 눈물이 나지만 그나마 남에게 보일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 몰래 전구로 눈물을 훔친다. 전구는 짐승의 털과 가죽으로 만든 북방 유목 민족이 입는 옷이므로 조선 사신에게 그리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이것은 한나라 蘇武가 匈奴의 땅굴에 갇혀서 목이 마르면 눈을 삼키고 배가 고프면 전구를 뜯어먹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夢窩의 대청 적개심은 蘇武의 고사<sup>73)</sup>와 연결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忍想吞旆雪窖時      눈구덩이서 전구를 삼키던 때를 차마 생각했는가  
尋常掩淚卷中詩      평소에 책속의 시를 읽으며 눈물을 닦았지  
今來舊跡尋無處      이제는 예전의 흔적은 찾을 수 없지만  
惟有高各虜亦知<sup>74)</sup>      다만 오랑캐들이 모든 걸 알고 있으리라

이 시는 앞부분에서 청음이 심양에 끌려와 눈구덩이 속에서 고난을 겪던 일을 말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蘇武가 눈구덩이에서 전구를 뜯어 먹어가면서도 절개를 지켰던 고사를 배경으로 깔고 있다. 淸陰의 심양살이는 책을 통하여 자세하게 알고 그의 고생에 눈물을 흘렸다. “雪窖”에서의 생활을 직접 심양에 와서 재음미하는 것이다. 淸陰은 被執 당시 자신의 처지가 蘇武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지은 시문을 「雪窖集」, 「雪窖後集」, 「雪窖別集」이라 하여 蘇武에 자신을 비유하였었다.

그런데 막상 그 현장에 와서 보니 선조의 발자취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가해자였던 오랑캐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夢窩는 증조부가 겪었던 일들을 오

73) 蘇武는 한나라 武帝 때의 충신이다. 匈奴에 사절로 갔다가 항복하기를 강요당하고 거절하니 蘇武를 땅굴에 가두어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이 때 蘇武는 전구를 씹어 먹고 눈을 삼키면서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갖가지 방법이 소용없게 되자, 匈奴 單于是 蘇武를 북해 기슭으로 보내어 양을 치게 했다. 그는 蘇武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숫양이 새끼를 낳으면 한나라로 돌려보내겠다.” 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蘇武를 한나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북해는 사시사철 눈이 녹지 않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 황막한 곳이었고 심지어는 새조차도 보기 힘들었다. 蘇武는 배가 고프면 들쥐 구멍을 파서 그 안에 있는 풀씨로 배를 채웠다. 얼마 후에 單于是 사람을 보내와서 투항하라고 설득했다. 그러나 蘇武는 여전히 투항을 거부했다. 蘇武는 매일 양을 몰면서, 武帝가 내린 정절을 쓰다듬곤 했다. 긴긴 세월 동안 하도 쓰다듬으니 정절의 털이 다 빠지고 대만 남았다. 그래도 蘇武는 대만 남은 정절을 끌어안고 19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보내면서 충절을 지켰고 끝내 한나라로 돌아갔다. 『蘇武牧羊』 『中國上下五千年史』, 2008.

74) ‘次北溪潘陽感懷韻』 『夢窩集』 61면.

랑캐의 기억에서 불러내 증조부가 청나라에 끌려와서 겪었을 수모를 생각하면서 청나라에 대한 증오심을 곱씹는 것이다.

停車一望動悲歌	수레를 멈추고 바라보니 슬픈 노래 나오니
百戰山川掩淚過	수많은 전투 치른 산천 눈물 닦으며 지나가네
黨議元知終誤國	당쟁이 끝내 나라를 그르친 것은 알았지만
虜鞭誰覺已投河	오랑캐의 채찍이 벌써 강에 들어올 줄 누가 알았으랴
煙沈漢塞烽臺廢	연기가 가라앉으니 한나라 변방 봉화대 폐하였고
月照胡沙戰骨多	달빛이 오랑캐의 사막을 비추니 전사자 유골 많네
最是長城先自壞	만리장성이 가장 먼저 무너졌으니
至今遺恨咽寒波 <sup>75)</sup>	지금도 남은 한 차가운 파도에 오염하네

夢窩는 단순히 청에 대한 증오심을 곱씹기만 하지는 않는다. 이 시는 오랑캐가 조선을 침략한 것을 읊은 것이 아니라 명나라를 친 것을 말하고 있다. 夢窩는 당쟁이 나라를 그르쳤다고 원인분석을 한다. 그 결과 전사자의 유골이 많은 것이다. 만리장성을 그렇게 공들여 쌓았어도 허망하게 무너져버렸으니 지금도 한이 남아 있다. 이러한 원인 분석의 결과 중화는 오랑캐의 땅이 되어버렸다.

巋然曾是大明宮	우뚛 솟아 있는 것은 대명궁이고
天子旌旗滿眼中	천자의 깃발이 눈에 가득하네
詎復袞衣瞻八彩	언제 다시 임금님이 정복을 입은 광채를 볼 수 있으리
但見胡帽散千紅	오랑캐의 모자가 붉은 색으로 흩어진 것만 보이네
笙鏞迭奏非周樂	생황과 종을 번갈아 연주하나 주나라의 음악이 아니고
城闕猶全摠漢功	성궐이 온전한 것은 한나라 업적이네
玉帛舊廳腥穢遍	예물을 바치던 옛 궁궐은 비린 내 가득하고
卻慚周幣亦來同 <sup>76)</sup>	주나라의 화폐를 또 바치는 것이 부끄럽기만 하구나

夢窩는 여전히 壬辰倭亂 때 조선을 지원해준 명나라의 은혜를 잊지 못한다. 웅장한 궁궐은 원래 명나라의 것이었으나 지금은 청나라의 깃대만 널려 있다. 빛나

75) '大凌河感古' 『夢窩集』 62면.

76) '次大有元朝韻' 『夢窩集』 63면.

던 명의 풍채는 사라졌고 지금은 이미 오랑캐의 습관으로 변해버렸다. 周와 漢은 모두 한족이 세운 정권이다. 그런데 지금 중국 땅 궁궐에서 들리는 음악은 더 이상 주나라 음악이 아니며 궁궐은 한나라의 업적으로 온전하지만 청나라의 대궐로 변하여 비린내만 진동한다. 궁궐은 여전한데 조선의 同盟之國 명은 이미 청으로 바뀌고 청과는 宗藩關係가 되었다. 異民族인 만주족의 지배하에 있는 땅에 와서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었으니 마음이 아프기 그지없다.

청에 대한 증오심은 老稼齋도 夢窩 못지 않게 강하였다.

鬱鬱羈懷始欲寬	답답한 나그네의 회포가 풀리니
遼陽西望莽蒼間	요양에서 서쪽으로 넓은 들을 바라보네
荒城獨有千年塔	황량한 성에는 천년의 탑만 홀로 있고
大野渾無一點山	너른 들에는 산이라고 없네
阜帽高風知已遠	검은 모자 쓰는 풍채는 이미 사라졌으나
仙歌今日恨相關	신선의 노래는 오늘날까지도 연관이 있음을 한하네
可憐安市差強意	가련하구나, 안시성의 강한 의지로
不遣唐皇得志還 <sup>77)</sup>	당태종의 욕망도 못 떨치게 하고 물리쳤는데

老稼齋 역시 역사 속의 요동 땅이 지금은 천년의 탑만 남아 있고 산조차 없는 것에 탄식한다. 管寧은 삼국시대 위나라 사람으로 예악에 밝았다. 그런 그가 쓰던 검은 모자는 이미 사라져버렸고 오랑캐들의 땅이 되어버린 것이다. 범속한 인간과는 다른 丁令威 같은 신선들에게나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의미를 갖는 곳이다. 그곳에서 老稼齋도 그의 형 夢窩와 같이 역사적 사실을 반추한다. 이곳은 옛날 唐太宗의 침략을 물리친 곳이다. 그런데 조선은 오랑캐의 침략을 물리치지 못하였다.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역사의 현장인 것이다.

청의 노정길은 요동을 지나는데 그 중에서도 심양을 거쳐 북경의 첫 관문인 산해관을 거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조선 사신들이 처음 청나라를 접하는 곳이 심양이라 할 수 있다. 심양은 당시 조선에게는 뼈아픈 곳이며 夢窩

77) ‘謹次遼東先韻’ 『老稼齋集』 104면.

형제에게도 슬픈 기억이 있던 곳이다. 심양은 전쟁의 패배의 대가로 조선의 많은 사람들이 인질로 끌려온 곳인 반면 청이 연경으로 도읍을 옮기기 전의 본거지로 만주족에게는 기념적인 곳이기도 하여 심양에 이르렀을 때 이들의 감회는 더욱 남달랐다.

天道如今可復論	천도는 이제 다시 논할 수는 있을까
尙看腥穢滿乾坤	아직까지 비린 내가 천지에 가득하네
長城虛繞蒙恬塞	몽염은 장성을 헛되이 쌓았으니
椎髻無非李廣孫	상투 친 사람들 이광의 자손이 아닌 자가 없고
北海看羊地卽是	북해에서 소무가 양을 치던 곳 바로 여기인데
秦關生角恥猶存	진관에서 피리 소리 울리는데 부끄러움 아직도 남아 있네
嗚呼往事詢何處	아아, 지나간 일들을 어디에 물을까
征袖空添拭血痕 <sup>78)</sup>	소매 끝으로 피눈물 흔적만 닦는다

老稼齋는 심양에 도착하여 주변사람들을 보니 만주족만 있다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天道를 논한다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그는 잠시 옛 일을 회상하며 蒙恬과 李廣을 떠올린다. 蒙恬은 30만 대군을 이끌고 북쪽 匈奴를 물리치고 만리장성의 선을 처음 그은 사람으로 秦始皇의 총애를 받았다. 秦始皇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이제 와서는 만주족을 막지 못했으니 그의 노력은 허사가 되었다. 西漢代 장군 李廣은 武帝 때 北平의 태수가 되어 匈奴와의 70여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匈奴에게 가장 무서운 장수로 인식되었고 武帝의 실크로드 개척에 많은 도움을 준 인물이었다. 그 뒤 그의 후손들이 北平에서 世居를 하면서 匈奴의 침략을 막는 일을 하였다. 그러나 지금 그의 후손들은 오랑캐를 막지 못하고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 한나라의 蘇武가 匈奴에 항복하지 않고 19년 동안이나 북해<sup>79)</sup>에서 양을 치면서 충절을 지켰다. 지금은 이미 만주족의 땅이 되어 버린 것을 안타까워한다. 老稼齋는 옛 북쪽 오랑캐와 만리장성과 관련된 고사를 떠올리며 丙子胡亂의 치욕을 회상하고 있다. 만리장성 어딘가에 들려오는 피리소리를 듣고 이와 같은 현실에 탄식하면서 피눈물을 닦

78) ‘瀋陽感懷.次雲沙韻’『老稼齋集』105면.

79) 지금의 러시아 시베리아의 바이칼호 일대를 말하는데 한나라 때는 북해라고 불렀다.

는다.

行聽漢語雜胡歌	길을 가며 한어와 오랑캐 노래 섞인 것 들으니
敗壘殘臺幾處過	무너진 보루와 누대를 몇 곳이나 지났는가
慘慘積陰蒙古界	몽고의 경계에는 쓸쓸히 음산한 기운이 쌓이고
茫茫飛雪大凌河	대릉하에는 아득히 눈 날리네
山圍戰地居人少	산이 둘러싼 전쟁터에는 사는 사람 적은데
野遍寒蕪放馬多	잡초가 널린 들에 풀어 놓은 말이 많네
前去更堪問往事	다시 지난 일을 물을 수 있겠는가
錦州城下血流波 <sup>80)</sup>	금주성 아래는 핏물이 파도처럼 흐른다네

후술하겠지만 老稼齋는 일찍부터 중국에 관심이 많았고 가보고 싶어 했다. 그러나 막상 가서 길에서 한어와 함께 오랑캐의 노래가 섞여 들리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말소리는 한어이지만 사람은 적고 들판에는 말이 가득하다. 한족은 원래 말과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다. 사람은 별로 보이지 않는데 들판에 말이 많다는 것은 오랑캐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많은 싸움이 있었고 싸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성 아래 흐르는 강에는 물이 아니라 피가 흐를 정도였다. 그 한 예가 금주성 싸움이었지만 사실은 많은 싸움 끝에 오랑캐의 세상이 된 것이다.

玄帝燒香曉出宮	현제에게 향을 피우고 아침에 궁을 나서니
鐘聲先動午門中	종소리가 오문에서 먼저 울리네
雲隨騎去晨光黑	구름은 말을 따라가니 새벽 빛은 어둡고
塵逐旗廻旭日紅	먼지는 깃발 따라 도니 아침 해가 붉네
縱戒重瞳毋妄語	눈동자가 두 개인 자 망령된 말 못 한다 해도
寧忘北地樹奇功	어찌 북방에서 공을 세운 것을 잊으랴
可憐天下無豪傑	가련하구나, 천하에 호걸이 없으니
萬國終然拜跪同 <sup>81)</sup>	만국이 끝내는 함께 무릎을 꿇네

80) ‘大凌河感古’ 『夢窩集』 62면. 이 시는 『老稼齋集』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夢窩壘簾錄』에 수록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老稼齋 본인의 문집에는 없고 『夢窩集』에 있지만 夢窩와의 비교를 위해 검토 대상으로 한다. (이하 같음).

이 시는 전반부에서 천자의 위엄을 말한다. 오문에서 종소리가 들리고 아침 해가 붉게 떠오른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모습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천하가 청에 무릎을 꿇었다. 이 지경에 오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호걸이 한 명도 없다.

老稼齋도 夢窩와 같이 한족이 세운 공적이 없어지고 만주족의 지배에 한탄한다. 만주족이 천하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아직은 천하에 그에 맞설 수 있는 호걸이 없다. 마음속으로 현실을 인정할 수 없지만 청에 조공을 바치는 것이 부끄럽기만 하다.

### 3. 先親에 대한 회고

연행노정은 일정한 경로로만 가도록 허락되어 있어서 燕行詩 또한 일정한 노정에 따라 산출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壯洞金門의 연행체험은 선조들의 족적을 답습하면서 그들의 연행시를 차운하고 회고하는 것이 집안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들에게 연행은 공식적으로는 나라를 위한 것이지만 사적으로는 가문의 역사를 추체험하는 기회였다.

荒山漠漠轉逶迤	아득하고 황량한 산을 구불구불 돌아오다가
忽見蔥峰特地奇	홀연 총수산 봉우리를 보니 기이하구나
面面空青層壁立	모든 면이 공청석으로 벽을 이루었고
纍纍鐘乳凍泉垂	겹겹이 종유석으로 언 샘에 드리웠네
名區幾被羣仙品	얼마나 이름난 곳으로 신선들의 품평을 받았을까
遐域長瞻數字遺	멀리서 오랫동안 새겨진 글자들을 바라보네
往迹依然餘一榻	지난 자취 의연하고 의자 하나 남았으니
至今猶想坐題詩 <sup>82)</sup>	지금까지 앉아서 시 짓던 모습 상상하네

81) '元朝' 『老稼齋集』 108면.

82) '蔥秀山,謹次先韻' 『夢窩集』 56면.



夢窩는 蔥秀山의 기이함에 감탄한다. 석벽은 모두 공청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종유석이 늘어져 있다. 하나같이 신선들이 와서 명구라고 칭송하면서 품평을 했을 만 한 풍경이다. 夢窩는 이러한 감탄을 부친 金壽恒에게로 연결시킨다. 부친도 분명 똑같이 구불구불한 길을 걸어 여기까지 와서 이 기이한 산을 바라보았다. “往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시의 미련에서는 夢窩가 부친도 이 기이함에 감탄하며 시를 지은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다.

平原淺阜度逶迤	평원과 낮은 언덕을 구불구불 돌아와
蔥秀山光刮眼奇	총수산의 기이한 경치에 눈을 비비네
倒滴巖泉清可掬	거꾸로 떨어지는 암천은 맑아서 한 줌 움길 만한데
側生楓栝老皆垂	옆으로 난 단풍과 노송은 늙어 드리워졌네
古人留字年難問	옛사람이 남긴 글자 언제였는지 알 수 없어
過客停鞍累暫遺	지나가는 나그네 말을 멈추고 고달픔을 잠시 잊네
小子今來偏愴感	소자가 오늘에 와서 유난히 슬프니
集中重閱舊題詩 <sup>83)</sup>	전에 지은 시를 다시 읽네

夢窩가 곧바로 산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과 달리 老稼齋는 원경으로부터 시작한다. 蔥秀山까지 오는 길은 넓은 평원과 나지막한 언덕들이 전개된다. 그런 곳을 지나면 蔥秀山이 갑작스럽게 우뚝 서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거기에서 夢窩는 아버지가 시를 짓던 모습을 상상한다. 이와 달리 老稼齋는 아버지의 시를 읽는다.

老稼齋의 『일기』에서 ‘임진년 11월 22일자’를 보면 사행일행은 의주에서 金尙憲을 모신 서원을 알현하고 壽星村 옛터를 찾아간다. 1640년 심양으로 잡혀갔던 金尙憲은 이듬해에 병이 심해져서 잠시 이 곳에 머물었는데 이 때 壽星村이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한다. 夢窩 형제가 여행할 당시 壽星村의 유적은 사라지고 淸陰先生碑만 남아 있었다. 壽星村에 남아 있는 金尙憲의 흔적에 대해 金壽恒은 1653

83) 위와 같은 곳.

년에 남다른 감회로 시<sup>84)</sup>를 남긴 바 있다. 이 곳을 다시 찾은 형제들은 부친의 시를 차운하여 선조에 대한 회고와 자신의 처지에 대한 감회를 나타낸다. 수치가 아직 가셔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의 후손이 사행의 일원으로 청나라에 조공을 바치러 가는 것이 현실적 의미를 지니고 작자의 복잡하고 모순적인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皮幣深羞尚可論	조공을 바치는 수치스러움 아직도 말할 만한데
路穿榆塞暗傷魂	길이 어느새 변방으로 통하게 되니 마음이 상한다
壽星遺跡今猶記	수성촌 유적이 아직도 기록이 남아있으니
多媿兒孫過舊村 <sup>85)</sup>	후손이 옛 마을을 지나기가 부끄럽구나

병자년의 수치는 여전한데 사행길은 오랑캐 땅에 점점 가까워진다. 증조부는 대명의리를 지키기 위해 포로 생활도 마다하지 않고 끌려갔는데 자신은 지금 오랑캐에게 조공을 올리기 위해 사행길을 나섰다. 증조부와는 정반대인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복잡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것을 유적이 남아 있고 그곳을 지나는 후손이 부끄러워한다고 읊고 있다.

茫茫往事與誰論	아득한 지난 일을 누구와 논하라
來訪殘碑只斷魂	남아 있는 비석에 와보니 마음이 찢어진다
北望深羞猶未雪	북쪽을 바라보니 큰 수치 아직도 씻어내지 못했는데
茲行又過壽星村 <sup>86)</sup>	이 행차는 또 수성촌을 지나는구나

老稼齋 역시 남아있는 “殘碑”를 보면서 증조부가 겪었던 치욕과 고통을 헤아린다. 夢窩의 “傷魂”, 老稼齋의 “斷魂”은 이들의 내면을 표현한다. 壽星村을 찾은 것은 단순히 선조를 기리기 위한 것보다는 역사현장에서 선조들이 겪어야 했던 수치와 고통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후손으로 현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 인지를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이다. 시간적으로 70년이 지났지만 이들은 선조가

84) ‘龍灣感懷’ 『文谷集』 卷二 56면. “行窮絕域暫停輶, 卻算歸程更斷魂. 江到九龍秋水闊, 山橫白馬朔雲屯. 邊城暮雨遙連海, 客舍寒燈早閉門. 何處感懷偏掩淚, 統軍亭下壽星村.”

85) ‘謹次龍灣感懷先韻’ 『夢窩集』 58면.

86) ‘謹次龍灣感懷先韻’ 『老稼齋集』 102면.

다녀왔던 여행길을 그대로 걸으면서 가문의 역사를 추체험하는 동시에 가문에 대한 자부심도 드러낸다.

夢窩 형제의 사행길에는 각자의 아들이 평양까지 동행하였다. 이렇게 집안의 젊은 자제가 여행길의 부친을 동행하여 평양, 의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과의 이별에 임해서 夢窩는 계축년에 부친 金壽恒의 여행길에 동행하였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한다. 자신이 평양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부친으로부터 시<sup>87)</sup>를 받은 바 있었다. 이제 자신이 정사가 되어 아들에게 배움을 받으니 옛 기억이 떠오르면서 감회가 남달랐다.

歷盡關河路險艱	관하를 다 지나고도 길이 험하니
長驅鞍馬豈曾閒	오랫 동안 안장 위를 달렸는데 어찌 한가로울까
天涯父子相隨遠	하늘 끝까지 부자가 함께 왔는데
可耐臨江送獨還	강가에서 홀로 가는 너를 보내는구나
歲暮歸程雨雪時	세밑에 돌아갈 때 진눈깨비가 내리는데
弊裘風馳不禁披	바람이 부니 헤진 갓옷을 걸치지 않을 수 없네
應知陟岵孤吟日	아비를 그리워하며 외로이 시를 읊고 있으리니
望子山前亦有詩 <sup>88)</sup>	아들을 바라보며 산 앞에서 시를 짓네

夢窩는 여기에서 서울에서부터 멀리 평양에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아들에 대한 걱정을 하늘 끝까지 함께 왔다가 이제 강가에서 홀로 돌아가는 너를 보내는 심사를 털어 놓는다. 앞으로의 길은 당연히 청으로 가는 길이 험하겠지만 부모 마음은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는 아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것이다. 그 안타까움이 “可耐”에 응축되어 있다. 이 말은 번역문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걱정스러운 마음을 억누른다는 느낌을 내포하고 있으니 이 구절은 강가에서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을 억누르고 아들을 전송한다는 의미이다. 사실 아들이 돌아가는 길에 비하여 자신이 갈 길이 훨씬 더 어렵다. 따라서 안타까움을 참

87) ‘燕行時.集兒隨到箕城.辭歸口占書贈兼示諸兒 二首’ 『文谷集』 卷三 60면.

88) ‘癸丑燕行時.余陪到箕城.落歸時.有下贈兩絕.今濟兼到此告別.敬次其韻以贈’ 『夢窩集』 59면.

는다는 말은 그저 父情의 표현이라고 간단히 넘길 수도 있다.

여기에서 夢窩는 부친의 애뜻해 하는 마음을 절절하게 읊조린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세월에 아들이 먼 길을 가야 한다. 헤진 갓옷이라도 걸치지 않을 수 없는 추운 날씨이니 부모로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다. 여기에서 夢窩는 아버지를 생각한다. 지금 내가 아들을 걱정하는 것처럼 당시 부친도 내가 돌아갈 길을 걱정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을 것이다. 당시에는 별로 생각하지 못했던 부친의 마음을 아들을 보내면서 절절하게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陟岵”는 부친 金壽恒에 대한 그리움이자 아들 濟兼을 생각하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다.

老稼齋 역시 부친의 시에 차운하여 자신을 배웅하러 온 아들 彦兒에게 시를 지어준다.

相攜不覺道途艱      서로 이끌면서 오니 길이 험난한 줄 모르겠으니  
五十長亭過等閒      오십개의 정자를 가벼이 지났다  
到此離懷偏作惡      여기서 이별하려니 하필이면 나쁜 생각이 들어  
我行還念爾孤還<sup>89)</sup>      내 연행길보다 너의 귀향길이 더 걱정되는구나

“부자가 서로 이끌면서 오니 길이 험난한 줄 모르겠”다는 말은 아들이 평양까지 동행한 기쁨을 담는다. 멀고도 험한 사행길이지만 아들 彦兒가 함께 하였기에 험한 줄도 모르고 왔다. 이제 여기에서 헤어져 아버지는 청나라로, 아들은 서울로 돌아간다. 그런 시점에서 아버지는 자신의 연행길보다 아들이 돌아가는 길이 더 걱정되는 것이다. 먼 길을 돌아갈 자식들을 걱정하는 부친으로서의 마음은 金壽恒이나 夢窩 형제나 똑같은 것이다.

청에 대한 적개심을 숨기지 않은 夢窩지만 북경성에 들어서서 그 변화를 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한다.

東來冠蓋入燕都      동쪽에서 온 사신이 연경에 들어섰으니

---

89) ‘在箕城別彦兒’. 위와 같은 곳.

觸事那堪感慨俱	보는 것마다 어찌 감개가 없겠는가
三世使星前後繼	삼대가 사신으로 와 앞뒤를 이었는데
百年文物古今殊	백년의 문물은 고금이 다르네
敢言專對迨先武	감히 선조의 전술을 쫓았다 하겠는가
但把遺篇驗舊途	유편을 잡고 옛길을 경험할 뿐이네
不肖縱慚多忝墜	못나서 조상의 덕을 더럽힌 게 부끄럽지만
橐中應復越金無 <sup>90)</sup>	전대 속에 월금이 없을까

지난 세월 문물은 엄청난 변화를 불러와 고금이 다르다는 감탄이 저절로 나온다. 이것은 북경에 들어와 보고 들은 감회이지만 증조부로부터 자신까지 백 년에 걸쳐 삼대가 연행을 온 그의 집안이 아니면 이러한 변화를 확인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경성의 변화에 감탄하면서도 그의 의식의 초점은 선조에게로 모아진다. 선조의 유편을 들고 지금과 달라진 옛길을 확인하는 것은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지만 조상의 자취를 확인하고 체험해보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다.

#### 4. 故國과 家族에 대한 그리움

고국과 가족에 대한 애뜻한 감정도 형제의 시에서 많이 나타났다.

沙屯川上不成眠	사둔천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幕里懸燈夜抵年	밤에는 장막에 등을 걸고 새해를 맞이하네
倚柵窓窓逢驛使	책문에 기대어 급히 지나가는 역사를 만나니
家書欲寄意茫然 <sup>91)</sup>	집에 편지를 보내고 싶은 마음에 망연하네

柵門은 조선과 청의 밀무역을 행하던 곳이므로 九連城과 鳳凰城 사이에 위치

90) ‘玉河館感懷’ 『夢窩集』 64면.

91) ‘謹次柵門寄家書先韻’ 『夢窩集』 60면.

해 있다. 夢窩는 변방에 이르니 곧 타국으로 발길을 향해야 한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사행을 떠난 시기가 겨울이고 곧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夢窩는 가족과 한 자리에 모이기는커녕 멀리 떨어져서 타국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다. 편지를 나르는 “驛使”를 보니 집에 편지를 보내고 싶은 마음에 “茫然”해진다.

老稼齋는 사행길 도중에 죽은 딸의 무덤을 찾아 시를 한 수 지었다.

迂途今至此	먼 길을 돌아 여기까지 왔는데
思爾尙如生	너를 생각하면 아직도 살아 있는 것 같구나
雪里看孤墓	눈속에 외로이 있는 묘를 보려고
山邊駐去旌	산길에서 행차를 머물렀네
重泉已三載	이미 죽은 지 삼년이고
萬里復孤征	나는 만리 길을 다시 외로이 간다
揮涕隨途旅	눈물을 흘리며 일행을 따라가니
旁人亦愴情 <sup>92)</sup>	옆 사람들도 같이 슬퍼하는구나

老稼齋의 시는 딸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다. 老稼齋의 딸은 이미 삼년 전에 죽었고 이 곳에 묻혔다. “迂途”에서 老稼齋의 그리운 감정은 더욱 절실하게 표현된다. 먼 길을 돌아 왔다는 것은 연행길 도중에 일부러 딸의 묘가 있는 곳에 왔다는 의미이다. 먼 길을 떠나기 전에는 그리워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다. 老稼齋는 이 마음이 삼 년 전에 죽은 딸에까지 미치고 있다.

이 시는 죽은 딸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시인의 심정을 매우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삼년이라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비하면 만리는 그야말로 아득히 먼 길이다. 그러나 먼 ‘만리’ 길은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짧은 ‘삼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이다. 이런 대를 통하여 자신의 슬픔을 배가시켜 나타내서 옆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도록 감정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92) ‘歷視亡女墓,次白氏臨津韻’ 『老稼齋集』 101면.

夢窩가 평안도 정주에 있는 영춘당에서 아버지의 시에 차운한 시이다.

孤燭分明夜照軒 외로운 촛불은 밝아 저녁 처마를 비추며  
爐煙迎客尙留薰 화로의 연기는 나그네를 맞이하여 따뜻함이 남았네  
冰霜絕域茲行苦 얼음서리 서린 변방에서 이 걸음 고달프니  
臥念鄉廬昔負暄<sup>93)</sup> 누워서 고향집의 따뜻한 햇살을 그려 본다

고향을 멀리 떠나고 낯선 곳에서 느끼는 추위는 배가될 것이다. 사행을 떠나는 시기가 겨울이라 매우 춥긴 하나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에 이르니 외로움도 더한다. 이런 심정을 夢窩는 “孤燭”으로 표현한다. 추운 날씨와 변방의 처량함이 이를 더욱 외롭게 만든다. 환갑이 지난 고령에 아프고 쇠약한 몸을 이끌면서 사행길을 떠나는 것은 夢窩에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영춘당의 화로에서 연기가 나고 있으나 夢窩는 여전히 “絕域”에서 추위를 느낀다. 이 추위에서 夢窩가 떠올리는 것은 고향집의 따뜻함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가족이 있다. 夢窩는 혼자서 고향의 추억을 머릿 속에 떠올리면서 자신을 달래는 것이다.

이 시에 老稼齋의 차운시가 「夢窩壘簾錄」에 실려 있다.

新安曉月臥東軒 신안의 새벽달이 뜨고 나는 동쪽 처마밑에 누워 있는데  
客被清涼不帶薰 나그네의 이불은 서늘하여 따뜻하지 않구나  
窗外曉寒問侍妓 창밖의 새벽 기운 차가우니 시중드는 기생에게 물네  
擬憑官酒作陽暄<sup>94)</sup> 관가의 술에 의지하면 따뜻해 질 수 있겠냐고

老稼齋도 夢窩와 같은 심정을 드러낸다. “曉月”이 이야기하듯이 老稼齋는 새벽까지도 잠을 이루지 못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夢窩는 영춘당에서 화로에서 따뜻함을 느낀다. 그리고 이것을 고향집의 따뜻한 햇살로 연결시킨다. 그러나 老稼齋는 이불에서마저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한다. 그는 기녀를 옆에 두고도 추위를 타

93) ‘謹次先集迎春堂韻』『夢窩集』58면.

94) 위와 같은 곳.

는 것이다. 그는 마침내 술을 찾는다. 고향과는 멀리 떨어진 변방의 찬 기운이 몸에 스며들어 추위가 더 하니 술기운이라도 빌려 추위를 떨치고 싶어 하는 심정을 토로한다. 형 夢窩의 시에 비하여 더더욱 쓸쓸하게 느껴진다.

夢窩와 老稼齋는 여행길을 함께 하면서도 다른 형제들에 대한 깊은 우애를 드러낸다.

鵝原最切遠于情	형제의 정은 멀어질수록 더욱 간절하니
滿月臺前別夢驚	만월대 앞에서 이별하던 꿈에 놀라 깨네
鴨水過來爲異域	압록강을 지나면 이국 땅인데
雪峰何處看雲生 <sup>95)</sup>	눈 덮인 산 어느 곳에서 구름 피어나는 것을 볼까

국경이 가까운 용만에서 夢窩는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만월대에서 이별하던 꿈을 꾸었다. 이제 강 하나만 건너면 다른 나라이다. 여기 있는 산들은 눈에 덮여 있다. 생각해보면 형제들이 이별하던 곳은 이와 달리 구름이 덮여 있었다. 강을 건너면 언제 다시 그런 풍경을 볼 수 있을까. “鴨水過來爲異域”는 이제는 진정 고국을 떠나 이국땅을 밟아야 하는 복잡한 심정을 드러낸다. 압록강만 지나면 이국땅인데 가족에 대한 미련에 만감이 교차한다. “驚”은 夢窩가 평소에 사행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을 그대로 나타낸다. 꿈에 놀라 깬다는 것에서 평소에도 가족을 많이 그리워하고 사행길에 대한 염려를 많이 했음을 알 수 있다.

蝸鳩詎識大鵬情	매미 비둘기가 봉새의 마음을 어찌 알까
躍馬西來舉世驚	말 달려 서쪽으로 오니 온 세상이 놀라네
猶恨吾兄未聯轡	우리 형과 고삐를 나란히 못한 것이 유난히 한스러우니
壯遊休說冠平生 <sup>96)</sup>	멀리 유람하는 것이 평생의 으뜸이라고 하지 마라

夢窩가 연경에 가게 되었을 때 처음부터 老稼齋가 수행하기로 한 것은 아니었다.

95) ‘謹次到龍灣寄伯氏先韻寄子益’ 『夢窩集』 59면.

96) 위와 같은 곳.



“백형이 동지사 겸 사은사가 되었다. 이 때 백형은 큰 병이 막 나아서 자제 중 한 사람이 따라가야 했다. 또 우리 형제들은 모두 중국을 한번 보고 싶어 했다. 이에 셋째 형은 가고 싶어 하였으나 그만두고 내가 대신해서 나라의 전송을 받았다. 그러자 일시에 비방하는 말이 떠들썩하게 일어나고 친구들은 많이 그만두기를 권하였다”.<sup>97)</sup>

老稼齋 형제는 모두가 중국에 한번 가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夢窩의 사행길은 형제들에게 중국에 가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애초에는 金昌翁이 수행하기로 했었다. 이 좋은 기회를 창흡은 동생에게 양보한 것이다. 老稼齋 형제들이 중국에 가보고 싶어 했다는 것은 ‘金尙憲으로 상징되는 반청 의식이 깊었던 壯洞金氏 집안’이라는 것을 생각해볼 때 약간은 기이한 느낌이 든다. 이것은 당시에 도 마찬가지여서 老稼齋가 형을 수행하여 중국에 갈 때 많은 비난이 일어났던 것은 이러한 사정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昌翁은 사행의 길을 포기하였다. 결국 夢窩를 수행하는 일은 老稼齋의 몫이었다. 老稼齋가 사행길을 떠난다고 할 때 조롱과 비난이 일어났고 온 세상이 비웃었지만 老稼齋는 청나라의 산하를 유람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sup>98)</sup> 그런 형을 생각하니 평소 그렇게도 하고 싶었던 유람도 갑자기 열의가 식는다는 것이다.

위 시 제목의 子益은 老稼齋에게 중국에 갈 기회를 양보해준 金昌翁의 字이다. 老稼齋의 시문의 “恨”은 많은 의미가 담겼다. 자신한테 연행의 기회를 양보해준 金昌翁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金昌翁이 사행길을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모두를 “恨”으로 표현한다. 夢窩와 老稼齋가 서로에 의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셋째 金昌翁에 부치는 시를 지었다는 것은 형제간의 각별한 우애를 보여준다.

사신 일행은 연경에 도착하여 46일 동안 옥하관에 머물렀다. 타국에서 새해를 맞은 형제의 감회 또한 남달랐다.

97) 『일기』 ‘往來總錄’ 15면. “壬辰六月二十三日政. 伯氏爲冬至兼謝恩使. 時伯氏大病新瘳. 子弟一人宜隨往. 且吾兄弟皆欲一見中國. 於是叔氏欲行已而止. 余乃代之以大角啓下. 一時譏謗譁然. 親舊多勸止”.

98) 일반적인 선입견과 달리 壯洞金門 집안에서 중국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元朝玉河館	옥하관의 설날 아침
何事倍淒然	무슨 일로 배나 처량할까
小弟初生歲	어린 동생이 태어나던 해에
先君遠役年	선군이 멀리 사신 가셨지
街綸吾最感	내가 하명 받으니 감격이 크고
周甲爾堪憐	환갑을 맞으니 네가 가련하구나
當日思歸詠	돌아갈 생각을 읊조리다가
心摧第四篇 <sup>99)</sup>	마음을 재촉해 네 번째 시를 쓰는구나

옥하관은 연경의 동남쪽에 있는 사신들의 숙소이다. 멀리 타국의 숙소에서 맞이하는 이들의 정월 초하루는 몹시 처량하다. 명절 날 아침이니 여느 때와 달리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시편으로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애절하다. 같은 경로로 연행을 했던 부친도 옥하관에 머물렀던 데에 생각이 미치면서 그때의 일을 회상한다.

시의 “小弟”는 바로 셋째 金昌翁이다. 60년 전의 계사년은 부친 金壽恒이 연행을 갔던 해이자 동생 昌翁이 태어난 해이다. 지금은 이미 60년의 세월이 흐르고 다시 계사년이 돌아오니 그 때 태어난 동생이 이미 환갑을 맞이할 나이가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만아들인 자신이 사신으로 선발되어 선군이 다녀왔던 길을 그대로 온 것이다. 함련에서의 “摧”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간절히 드러낸다. 그래서 돌아가는 생각을 하다가, 동생에게 주려면 아직도 한 참이 남은 것을 알면서도 고국에 돌아가면 환갑을 맞이할 설렘과 만남에 대한 기대에 벌써 네 번째 시를 짓는다.

老稼齋도 이 시에 차운하여 시 한 수를 지었다.

先君曾此役	선군이 일찍이 사신으로 다녀오셨으니
往跡尙森然	지나간 흔적이 아직도 삼삼하구나
豈意燕山館	어찌 알았을까, 연산관에서

99) ‘元朝志感’ 『夢窩集』 63면.

重逢癸巳年    다시 계사년을 맞이할 줄을  
 天時漫回復    천시는 다시 돌아왔는데  
 行色自傷憐    행색이 스스로 가련해지네  
 獨有墳簾詠    오직 형제가 주고받는 시로  
 相將和舊篇<sup>100)</sup>    옛날 지은 시에 화답하리

老稼齋 역시 계사년을 맞이하게 된 감회를 표현한다. 부친의 발자취와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지만 조선 사신들이 연경에 도착하면 묵는 옥하관에 자신도 묵게 되니 “往跡”이 “森然”하다고 한다. 맏형 夢窩와 동행하면서 서로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다. 시의 “熏簾”은 夢窩와 老稼齋가 서로 의지하는 형제간의 우애를 표현한다. 막연히 “옛날 지은 시”라고 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가리키는지는 밝힐 수 없지만 형제간에 서로 수창한 시를 다시 한 번 음미하면서 형제의 우애를 다지는 것이다. 연행 시의 수창시집을 「熏簾錄」이라고 명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夢窩형제는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에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기도 한다.

旅館居然見立春    여관에서 거연히 입춘을 맞게 되니  
 思歸轉覺客愁新    돌아갈 생각에 나그네 시름 새롭네  
 頻招譯舌探消息    자주 역관을 불러 소식을 묻는데  
 幾日應爲上馬人<sup>101)</sup>    며칠이면 말을 타고 돌아갈 거라고 응답하네

夢窩의 “新”은 곧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 설레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행길에 오를 때에는 아득하고 멀게만 느꼈는데 이젠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입춘이 되니 마음도 새로워진다. 막막했던 마음도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니 희망으로 바뀐다. “頻”은 夢窩의 마음을 생생하게 나타낸다. 고국으로 돌아갈 날자는 정해져 있지만 夢窩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주 역관을 불러 언제쯤이면 돌아갈 수 있냐고 묻는다.

100) ‘次伯氏元朝志感韻’ 『老稼齋集』 108면.

101) ‘立春日’ 『夢窩集』 64면.

이밖에도 「熏籠錄」에는 ‘七歌’가 있는데 杜甫의 ‘乾元中寓居同谷縣做作七首’의 형식을 빌어 사행의 고달픔과 수심을 그렸는데 흔히 ‘同谷七歌’라고 불리는 작품은 조선초기부터 불우한 선비들이 곤경가운데서 인생을 회고하고 자기 주변인물에 대한 애절한 심정을 노래하는데 많이 이용한 형태이다.<sup>102)</sup> 夢窩는 ‘七歌’<sup>103)</sup>에서 동생, 부인, 아들, 딸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다. 老稼齋 金昌業은 이에 화답하여 부인, 아들, 형, 동생에 대해서 읊어서 가족에 대한 그리운 정을 솔직하고 간곡하게 드러낸다. 그 중 老稼齋의 시 한수를 살펴보기로 한다.

有妻有妻今也亡	아내여, 아내여, 지금은 죽었지만
結髮恩愛何時忘	부부의 은혜와 사랑을 어찌 잊으랴
白雲山中同辛苦	백운산에서 함께 고생을 했는데
至今井臼留麥庄	이젠 우물과 절구만 맥장에 남았네
我今頭白有遠遊	지금은 하얀 머리로 멀리 유람하지만
萬里誰復念衣裳	만리 밖에서 누가 내 옷을 걱정해줄까
嗚呼二歌兮歌唏噓	아, 두 번째 노래를 슬피 부르며 탄식하네
百歲之後歸其居 <sup>104)</sup>	백세 후엔 그대가 있는 곳에 돌아가서 살 것이네

老稼齋의 ‘七歌’는 夢窩의 ‘七歌’보다 훨씬 애달픈 느낌이다. 老稼齋는 큰 아들과 딸을 잃은 고통을 겪었다. 게다가 그의 아내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다. 평생 아내와 동고동락해 왔는데 지금은 곁에서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가 없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다. 함께 했던 추억의 흔적은 맥장에 있는 우물과 절구 뿐이다. 늘 자신을 걱정해주는 아내였는데 늘그막에 만리 밖에서 돌아다니는 아내도 옷을 걱정해주는 이는 없다. 老稼齋는 긴 세월 뒤에는 꼭 아내가 있는 곳에 가서 함께 지낼 것을 다짐한다.

102) 윤경희, 앞의 논문, 「18세기 초 壯洞金氏 일문의 연행체험 - 金昌集의 燕行熏籠錄을 중심으로」, p.341.

103) ‘七歌’ 『夢窩集』 65면.

104) ‘和伯氏七歌’ 『老稼齋集』 109면.

#### IV. 金昌集과 金昌業의 「燕行堯簾錄」 비교

夢窩 형제의 시문을 비교해 보면 가문의 동질성과 형제간의 공감대를 보이지만 또 이들의 입장 차이에서 오는 시각도 다르므로 감정표현의 차이도 있거니와 이다. 여기에서는 夢窩와 老稼齋의 「堯簾錄」을 비교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夢窩와 老稼齋가 연행을 할 당시 두 사람은 처지부터가 달랐다. 夢窩는 1712년 연행사절단의 정사였는데 비하여 老稼齋는 子弟軍官의 신분이었다. 이러한 외형적인 차이 말고도 정사였던 夢窩가 어쩔 수 없는 연행이었다면 老稼齋는 가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스스로 원하는 연행길에 나섰다는 점이다.

老境如何京國遠	늘그막에 어찌 서울을 떠날까
朝廷辭出倍依依	조정에 하직하고 나오니 아쉬움이 더하네
家人脈脈惟臨戶	집사람은 문에 기대어 말없이 바라보고
兒女區區欲挽衣	딸아이는 구구하게 옷을 잡네
蠻貊雖慚仗忠信	오랑캐가 비록 부끄러우나 충성으로 임할 것이니
色辭何用見幾微	낯색과 언어로 어찌 기미를 나타낼까
半年痼疾休相念	반년 동안 고질병은 생각도 말아야지
應借君靈得好歸 <sup>105)</sup>	임금님의 덕으로 편히 다녀오리라

이 시는 제목 그대로 집을 떠나면서 지은 것으로 시의 공간적 배경은 집 앞이다. 연행 시 夢窩는 이미 64세의 고령이었다. 늙은 나이에 먼 길을 떠나려니 걱정이 앞선다. 자신의 쇠퇴한 몸을 이끌고 과연 무사히 다녀올 수 있을지 자신이 없고 가족들을 남기고 떠나려니 도저히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먼 길을 떠나는 시인 뿐 아니다. 가족들의 마음도 편하지가 않다. 부인은 병에서 막 일어난 늙은 남편이 먼 길을 떠나는 것을 아무 말도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고 아직 어려서 아무 것도 모르는 딸은 옷깃을 잡아 말린다. 부인의 “脈脈”한 심정을 철부지 딸이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다. 가기 싫은 길을 가야 하는 마음이 시의 전반부에

105) ‘辭家’ 『夢窩集』 55면.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번의 연행은 가기 싫다고 안 갈 수 없다. 그저 충성만을 생각하면서 다녀와야 한다. 정사로서 임무가 막중했던 夢窩는 오랑캐에게 가서 사운을 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오직 임금님께 충성을 다하고 의리를 지키겠다는 의지 하나로 모든 것을 감수하려 한다. 선조가 겪었던 수치도 아직 가셔지지 않았지만 이것은 나라를 위한 것이니 “色辭”로 나타내지 않으려 하고 고질병도 참아내고 부정적인 감정도 억제하며 자신을 달래본다.

老稼齋는 夢窩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

自幸懸弧計不違	사내의 포부를 그르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니
出門何用漫依依	문을 나서는 것 어찌 서운하겠는가
百年古匣防身劍	백년 된 갑숙에 방신검이 있고
七尺衰軀短后衣	칠척의 노쇠한 몸에 군복자락이 짧다
壯士寧能守蓬戶	사내가 어찌 집만 지키고 있겠는가
兒時固願戍金微	어렸을 때 소원은 금미산을 지키는 것이었으니
從他舉世皆嘲笑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 해도
萬里幽煙遍踏歸 <sup>106)</sup>	만리길을 두루 다녀오리라

老稼齋는 자신이 사내로 태어났으니 집을 떠나 천하를 주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그는 子弟軍官의 신분이지만 연행이야말로 평소의 소원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한다. “사내가 어찌 집만 지키고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집을 떠나 멀리 연행길에 오르게 되는 설렘에서 나오는 말이다.

夢窩가 청에 가게 되었을 때 打角의 신분으로 수행할 사람이 필요했다 하더라도 老稼齋 본인의 의지가 연행에 없었다면 그는 선뜻 따라 나서지 못했을 것이다. 老稼齋는 夢窩처럼 벼슬에 나아가진 않았지만 독서를 통해 간접적으로밖에 알 수 없었던 중화문명의 실상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106) ‘次伯氏辭家韻’ 『老稼齋集』 101면.

것이다. 그는 여행 전 치밀한 준비를 하였다. 老稼齋가 夢窩의 수행원으로 확정되고 여행을 기획하기 시작한 것은 임진년 6월 23일이고 실제 출발은 그 해 11월 3일이었으므로 4개월 이상의 준비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증조부나 부친의 여행기록 외에도 息菴 金錫胄의 『椒錄』, 休庵 白仁傑의 『燕行日記』, 宋玉汝의 『丁丑燕行錄』이 그의 『일기』에 자주 인용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그의 자료적 준비를 알 수 있다. 길을 떠날 때 다섯 째 圃陰 金昌緝도 여행준비에 도움을 주었으며<sup>107)</sup> 중요한 자료준비가 되었다. 또 老稼齋는 嘉山の 驛奴인 元建이 연경에 20여 차례를 다녀왔고 한어를 잘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동행시켰다.<sup>108)</sup> 뿐만 아니라 본인도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언어실력을 지녔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 해도 만리길을 두루 다녀오리라”고 다짐을 하는 것이다. 실현성 없는 북벌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당시 조선의, 그것도 청음의 집안 후손으로 老稼齋는 비장한 결심을 밝힌다.

夢窩에 비하여 老稼齋는 시에서 고사성어를 그리 많이 쓰지 않는다. 그러나 이시는 고사성어로 점철되어 있다. 그것도 사나이를 의미하는 “懸弧”<sup>109)</sup>나 “防身劍”<sup>110)</sup> 또는 무인의 옷을 뜻하는 “短后衣”<sup>111)</sup> 등 강하고 사나운 이미지를 주는 것들이 사용되고 있다. 집 앞에서 가족들과 눈물을 참아가면서 헤어지는 모습을 그린 夢窩의 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처지와 동기가 다름에 따라서 두 사람이 여행을 받아들이는 정서도 판이하게 나타난다.

東方欲曙詣君門      동이 틀 무렵 대궐에 들어가

107) 『일기』 ‘往來總錄’ 15면. “及治行,圃陰以沿路名山大川古跡路一冊,月沙角山閭山千山遊記錄一冊,并與地圖一張,置橐中”.

108) 『일기』 11월 17일 20면. “此邑驛奴元建.前後赴京.已二十餘次.履行書者.而爲人疏脫.不爲驛輩所喜.中間久見廢棄.余聞其善漢語.招見謂之曰.汝能從我乎.元健對曰.驛奴之已行書者.例不得以奴名行.而分付如此.當破格以往云”.

109) 득남의 의미로 아들이 태어나면 문 옆에 활을 걸어 놓는 풍속에서 유래하였다. 『禮記』 「內則」. “子生.男子設弧於門左”.

110) 수천마리의 소를 잡았다는 날카로운 칼인데 (『莊子』 「養生主」. (庖丁)所解數千牛矣.而刀刃若新發於硎). 후에는 御刀를 의미하게 되었다. (『通典』 「職官十」. “左右千牛衛.後漢有千牛備身.掌執御刀.因以名職”).

111) 무사들이 즐겨입는 옷을 가리키는데(『莊子』 「說劍」. “太子曰: 然. 吾王所見劍士. 皆蓬頭突鬢垂冠. 曼胡之纓. 短后之衣. 曠目而語難. 王乃說之. 今夫子必儒服而見王. 事必大逆”), 무사만을 일삼는 유자의 복장과 대비되어 文弱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史記』 「劉敬叔孫通列傳」. “叔孫通儒服. 漢王憎之. 迺變其服. 服短衣楚製. 漢王喜”라 하였고 이 부분에 “索隱曰: 孔文祥云,短后便事,非儒者衣服”이라고 주를 달아 놓았다).

前席仍瞻寶座尊      앞에 앉아 계신 임금님을 보았네  
 宣醞天寒憑醉氣      하사하신 술에 추위가 녹아내리고  
 賜貂遼雪挾春溫      내려 주신 담비옷은 요동의 눈속에서도 따뜻하겠네  
 一時望役寧辭義      한번 사행가는 것을 의리상 어찌 사양할까  
 萬里裝爲摠荷恩      만리행장이 모두 은혜를 입었구나  
 去去玉樓偏係念      궁궐과 멀어질수록 더욱 그리워  
 五雲回首倍消魂<sup>112)</sup>      오색 구름속에서 고개를 돌리니 더욱 간장이 녹는구나

이 시의 구조적인 감정도 앞에서 살펴본 시와 비슷하게 주로 이별의 소회를 읊고 있다. 나랏일로 임금을 배알하였는데 그 때를 연상하는 것은 하사하신 따뜻한 술과 담비 옷이다.

이러한 선물 다음에 夢窩는 사신으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寧辭義”는 사행을 가는 목적이 여전히 임금님에 충성하고 의리를 지키는 것에 있음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는 궁궐에서 멀어지니 미련이 남고 멀리 떠나려니 섭섭하기만 한 감정을 표현한다. 특히 “回首”는 夢窩가 떠나면서 자꾸 고개를 돌리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消魂”은 그가 녀을 잃을 정도로 애달픔을 표현한다. 이처럼 주로 임금님에 대한 감격 위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夢窩의 시는 전체적으로 매우 서정적인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다.

「夢窩堦簾錄」에는 이 시를 차운한 老稼齋의 시가 한 수 실려 있다.

親朋追送國西門      벗들은 서대문밖에서 송별해주고  
 寵餞羣公亦屈尊      여러 대신들도 사랑으로 전별하였네  
 暝色昌陵炬已舉      창릉에서 해 저물 녀 어느새 햇불 밝아졌고  
 離情濟院酒仍溫      홍제원에서는 이별의 정에 술도 따뜻하였네  
 東萊遠有吳鉤<sup>113)</sup>贈      동래에서 멀리 보내준 오구가 있고  
 北闕猥沾臘劑<sup>114)</sup>恩      북궐에서는 분수에 지나치게 납제까지 더 했네

112) ‘詣闕’ 『夢窩集』 55면.

113) 吳鉤: 吳나라에서 사용했던 휘어진 칼이라는 의미이다. 춘추 시대에 吳나라(강소성의 남부) 왕의 명령으로 칼뿔이 휘어진 곡도를 만들었는데, 이 칼의 날이 예리해서 무엇이든지 벨 수가 있었다. 이런 뛰어난 품질로 인해 그 이름이 역사에 남게 되었다.

114) 臘日무렵에 왕이 대신들에게 나누어주던 환약.



共說此行殊得意      모두 이 행차는 특별히 바라던 것 이루어진 것이라 하니  
 家人不用漫傷魂<sup>115)</sup>      식구들은 부질없이 마음 상할 것 없네

老稼齋가 그의 「老稼齋堯簾錄」을 정리하면서 왜 이 시를 신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시에서도 老稼齋와 夢窩의 의식의 차이를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다. 전별연에서 받았던 술을 포함하여 이것 저것 받았던 선물을 말하는 점은 老稼齋도 夢窩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老稼齋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오래전 부터 가지고 있던 일본에서 온 칼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sup>116)</sup> 혹시 객지에서 아프더라도 먹을 임금이 준 약을 떠올리면서 여행길의 걱정을 하지 않는다.

夢窩가 “궁궐에서 멀어질수록 그리움이 더하여 고개를 돌리니 더욱 간장이 녹는다”고 하는 것과 달리 “이번 여행은 평소 바라던 바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특히 미련의 “家人不用漫傷魂”은 夢窩의 “五雲回首倍消魂”과 형제간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魂”을 韻으로 하였지만 형제는 정반대의 의사를 밝혔다. 夢窩는 이별하는 아쉬운 감정을 드러낸 반면 老稼齋는 담담한 모습으로 오히려 배웅하는 이들을 위로하며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오랜 뜻을 펼칠 기회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良策投寒夜	좋은 계책으로 추운 밤에 투숙하고
征車啓早朝	달리는 수레가 이른 아침을 알리네
山連胡地近	산은 오랑캐 땅으로 이어 가까워지고
水入海門遙	물은 바다로 들어가 아득해진다
吹角臨關咽	뿃피리 소리는 관문에서 울고
飛驂得路驕	나는 듯한 말은 길이 익숙해져서 오만해지네
留灣知幾日	만에서 며칠이나 머물렀던가
客意怯過遼 <sup>117)</sup>	나그네 마음은 요동을 지나기가 겁나네

夢窩의 시에서는 늘 여행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보인다. 夢窩의 입장에서는

115) ‘詣闕’ 『夢窩集』 55면.

116) ‘送古劍洛誦樓’ 『老稼齋集』 16면. “日本古刀不知名 十餘年前掛我壁” -下略-.

117) ‘所串途中’ 『夢窩集』 58면.

심리적인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金壽恒은 己巳換局으로 賜死되면서 자손들에게 遺戒를 남겼다. 자신의 일생을 전철로 삼아 벼슬하게 되면 顯要職을 피하고 문호를 지키려면 出仕보다 학문을 진작하라고 하였다.<sup>118)</sup> 甲戌換局 이후 夢窩는 부친의 유계를 들어 출사하지 않으려 했다. 숙종의 계속된 윤음에 모든 형제가 출사하지 않는 것은 分義에 미안하다 하여 그지 지방관으로 간혹 출사하였다. 하지만 1701년(숙종27) 호조판서라는 중책을 맡으면서 결국 정계의 최일선에 서게 되었다. 출사 이후 그는 여러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가 顯要職에 재출사한 것은 여러 의미를 지녔다. 사정이 어떠했건 부친의 유계를 어겼다는 것에 늘 자책을 느끼기도 했다.<sup>119)</sup> 부친의 유훈을 어기고 출사한 것은 시세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었으나 항상 송구하며 변명할 길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늘 내면적인 갈등을 겪었다. 夢窩는 “怯”으로 이런 복잡한 심정을 드러낸다.

“怯”은 선친의 유계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기도 하지만 그것 뿐만이 아니다. 숙종조는 당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였으며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였다. 그것을 보고 겪은 夢窩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요동을 지나기가 겁”난다는 것은 물론 낮은 땅에서 자연스레 겪는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사행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기도 하였다. 실제로 夢窩는 그가 사은사로 청에 가기 전 통신사로 일본에 갔다가 국서 문제로 ‘통신’의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 趙泰億을 죄줄 것을 청하는 상소<sup>120)</sup>를 올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가 사신으로 갔을 때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막중한 책임을 진 정사와 달리 한낱 子弟軍官에 지나지 않았던 老稼齋는 그와 같은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다.

驅車如昨日      수레를 어제와 같이 몰고  
吹角又今朝      오늘 아침에도 뿔피리 불었네

118) 「遺戒」, 『文谷集』 卷二六 512면. “常存謙退之志, 仕宦則避遠顯要, …以爲視身保家之地…古人云不可使讀書種子斷絕, 汝輩果能勤誨諸兒, 終不失忠孝文獻之傳, 則持守門戶, 不必在於科第仕宦矣”.

119) 「和歸去來辭」, 『夢窩集』 8면, “輒犯經訓, 雖時勢之所使, 心常懼然, 無以自解”.

120) 「請罪通信使劄」, 『夢窩集』 122면.

忽報胡山出      갑자기 오랑캐 산이 나타났다고 보고하니  
 眞知我里遙      진짜로 멀리 왔음을 알겠네  
 僕夫愁欲哭      종은 시름겨워 울려고 하나  
 商譯暗生驕      상인과 역관들은 몰래 교만해지네  
 長嘯看吾劍      길게 울부짖으며 내 검을 바라보니  
 相攜可渡遼<sup>121)</sup>      가지고 요하를 건널 만하겠네

夢窩의 소극적인 생각과는 달리 老稼齋는 오랑캐의 땅에 오자 호기를 부린다. 그는 오랑캐 산이 나타났다고 보고를 받고 진짜로 멀리 왔음을 인식하고 검을 보면서 자신의 기개를 과시한다. 老稼齋에게 북벌의 의지가 집약된 상징은 바로 검이었다. 그는 검을 차고 천하를 주유하고픈 포부가 있었기 때문에<sup>122)</sup> 그의 「燠簾錄」 시문에서 자신의 검을 자주 언급하면서 여행길에 나서는 기개를 보인다. 검을 차고 여행하면서 그가 현실적으로 이루지 못한다는 절망감을 느낄 때 검에 자신의 정서를 이입하기도 하였다.<sup>123)</sup> 이 시의 “可”는 夢窩 시중의 “怯”과 선명한 대비가 된다. 老稼齋의 “可”는 그의 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老稼齋는 평소 10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북벌을 단행하는 것이 제일의 소원이라는 용지를 가졌었다<sup>124)</sup>. 老稼齋는 늘 당당한 모습을 보인다.

鴨水衣冠送我行      압록강에서 사대부들이 송별해주었는데  
 九連山下宿荒城      구련산 아래 황량한 성에서 묵네  
 征夫擾擾誰能睡      나그네 마음은 어지러우니 어찌 잠을 잘 수 있는가  
 放馬蕭蕭但自鳴      풀어 놓은 말은 쓸쓸하게 우는구나  
 弊幕處人愁雪色      허름한 장막에 머무는 이 내리는 눈이 근심스럽고  
 疏羅防虎怯風聲      엉성한 그물로 호랑이를 막으니 바람소리에도 겁나고  
 長途跋涉渾艱險      먼 길을 가는데 어렵고 험하니  
 此是初程最苦情<sup>125)</sup>      이것이 초행길에서 가장 괴로운 일이네

121) ‘次伯氏所申途中韻’ 『老稼齋集』 102면.

122) ‘送古劍洛誦樓’ 『老稼齋集』 16면. “日本古刀不知名,十餘年前掛我壁…周遊千里防君子,嗟爾古刀非無試.弟也伏枕徒鬱鬱,一爲悲歌意未已”.

123) ‘山海關’ 『老稼齋集』 107면. “歷歷山河在,悠悠男子征.驅車李廣郡,秣馬始皇城.帶劍終何用,吟詩但不平.未知燕市土,能復記荊卿”.

124) 「老稼齋府君遺事-子信謙撰」, 『檜巢集』 卷十, “時與李同甫言志,提卒十萬,北掃中原,是余第一願.言雖似夸,而志則可見”.

이것은 형제의 시중 형 夢窩의 작품이다. 송별해주는 사행들과 이별을 하고 황량한 구련성에 도착하니 夢窩는 마음이 어지러워 잠을 이루지 못한다. 고향과 멀리 떨어진 곳에 이르니 쓸쓸하고 낯설기만 하고 내리는 눈 그리고 호랑이를 막기 위하여 쳐 놓은 엉성한 그물 등 모든 것이 근심스러워 바람 소리에까지 겁을 낸다. 이것은 막중한 임무를 띠고 외국에 나간 사신의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는 말은 “蕭蕭”하기보다는 자유롭다고 하는 편이 더 실상에 가까울 것이다. 그런데 夢窩는 쓸쓸하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사실 夢窩의 심정을 표현하고 “愁”에서는 사행길에 대한 걱정을 나타낸다. 이와 함께 이 시에는 “怯”이 또 다시 나타나는데 「夢窩熏簾錄」에는 이 시를 포함하여 “怯”자가 자주 나타난다. 夢窩가 실제로 눈이나 호랑이를 겁을 내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이것들이 사행길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으로 말한 것이다. 사행길의 夢窩는 두려움을 느낀 것은 분명하게 보인다.

槍軍一隊后先行	창을 든 군사 한 무리가 앞뒤에서 가고
亂樹高低是廢城	높고 낮은 나무사이에 황폐한 성이 있네
雪滿荒山披草宿	눈으로 가득한 황산에서 풀을 쓰고 자려는데
天寒饑馬傍人鳴	추운 날씨 속에 굶주린 말은 사람 옆에서 울고 있네
虎豹交過朝看跡	범과 늑대가 지나간 흔적이 아침에 보이고
徒旅相招夜有聲	나그네들 서로 부르는 소리는 밤에 들리네
卻幸大衾同臥起	다행인 것은 형제가 한 이불속에서 같이 일어나니
塤箎免奏苦寒情 <sup>126)</sup>	훈지가 추위의 괴로움을 연주하는 것을 면하는 것이네

老稼齋의 시에는 夢窩에게 보이는 쓸쓸함이나 두려움이 없다. 범이나 늑대의 흔적을 보아도 창을 든 군사들을 보고 나그네들 소리를 들으면서 두려움을 극복한다. 추위에 잠을 이루지 못하지만 老稼齋는 형제가 함께 하니 모진 추위의 괴로움은 견딜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夢窩는 괴롭고 두려운 마음을 드러냈지만 老稼齋는 연행의 자세에서 夢窩보다 훨씬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다.

125) ‘九連城謹次先韻’ 『夢窩集』 59면.

126) ‘九連城謹次先韻’ 『老稼齋集』 103면.

夢窩 형제는 요동에서 선친의 시를 차운한 시를 남겼다. 여기에서도 이러한 차이를 잘 보여준다.

大野鴻蒙積氣浮	넓은 들에 원기가 떠다니니
行人舉有望洋愁	행인들은 모두 바다를 보며 걱정하네
蒼蒼但見天低處	푸르고 푸른 하늘 끝만 보이고
杳杳難窮地盡頭	아득하고 아득한 땅은 끝이 없구나
誰向長空孤鶴化	누가 하늘 향해 외로운 학이 되었던가
翻疑巨浸一槎流	넓은 바다에 뗏목 타고 흘러갈까
井觀頓覺胸襟豁	우물안에서 갑자기 가슴이 트이나
萬里寧歎作遠遊 <sup>127)</sup>	만리 밖에서 노는 것을 탄식하네

여기에서 夢窩는 넓은 들에 원기가 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바다를 보며 걱정”한다는 것은 『莊子』 「秋水篇」에 나오는 “望洋而嘆”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원래 가없는 진리의 길을 보고 스스로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나중에는 뜻을 넓게 해석하여 자기의 힘이 미치지 못함을 탄식한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 것이므로 이 시는 夢窩의 바로 그와 같은 심정의 솔직한 고백이라 할 것이다. 夢窩는 우물 안에 앉아서 하늘을 보니(井中觀天) 가슴이 시원하다고 한다. 조선에 있다가 청나라의 넓고 끝없는 벌판에 와보니 가슴이 트이는 것은 사실이나 夢窩는 이 행차를 즐길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떠나 만리 밖에서 노는 처지를 탄식하는 것이다. 이것은 夢窩의 심리적 갈등이다.

老稼齋는 이와 다르다.

華表西邊大野浮	서쪽 변방 화표주 넓은 들에 떠 있는 듯 해서
乍看堪喜又堪愁	언뜻 보니 기쁘기도 하고 근심스럽기도 하네
漫漫周道眞如砥	넓게 뚫린 대로는 숫돌처럼 평평하고

127) ‘又次先韻’ 『夢窩集』 60면.

點點遙岑漸縮頭      멀리 있는 산봉우리는 점점 낮아지네  
 積氣渾沌初未判      혼돈스러운 기운은 천지개벽 이전 같고  
 巨量溟海竟無流      거대하고 망망한 바다는 흐르지 않는구나  
 吾東小見爭譏我      동쪽에 있는 식견이 얇은 이들은 나를 비웃겠지만  
 歸日先須詫此遊<sup>128)</sup>      돌아가서는 맨 먼저 이 유람을 자랑하리라

老稼齋는 넓은 들판을 보면서 호방한 기분으로 느낀다. 들판의 광막함은 “혼돈스러운 기운이 천지개벽 이전 같이 쌓여 있”는 것 같고 그 거대함은 “마치 바다처럼 망망하여 바다처럼 고요히 흐르지 않는다”. 이어서 老稼齋는 동쪽의 소견이 좁은 사람들은 비웃겠지만 이 유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돌아가서도 필히 자랑할 것이라고 말한다.

萬里同賓雁      만리길을 기러기처럼 함께 왔으니  
 惟言莫少違      잠시도 떨어져 있지 말아야 한다  
 卻嗟臨鶴野      탄식하네, 학야에 와서  
 不肯一行歸<sup>129)</sup>      함께 돌아가려 하지 않는 것을

연행길에서 老稼齋는 치밀한 준비를 하였지만 태도도 매우 적극적이었다. 처음부터 사행의 노선이 정해져 있으나 老稼齋는 醫巫閭山과 千山을 유람하기 위해 북경에 가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永安寺에서 만난 노승에게 귀로에서의 千山여행에 대한 협조를 부탁한다.<sup>130)</sup> 동생이 醫巫閭山과 千山으로 가면 형제가 서로 떨어지게 된다. 일개 打角이었던 老稼齋는 홀가분하게 갈 수 있지만 정사 신분이었던 夢窩는 설사 마음이 있더라도 갈 수가 없었다. 그렇게 되면 잠시나마 형제가 떨어져야 하는 것이다. 夢窩의 시는 이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잠시 떨어지는 것도 “함께 돌아가려 하지 않는 것”으로 말하면서 탄식을 하는 것이다.<sup>131)</sup>

128) ‘又次先韻’ 『老稼齋集』 104면.

129) ‘詠雁’ 『夢窩集』 69면.

130) 『일기』 12月4日 29면.

131) 老稼齋는 형의 시에 차운하여 대답을 하였다. ‘次伯氏詠雁韻’ 『老稼齋集』 111면. “已涉萬里遠, 休嗟數日違. 聯翩渡鴨水, 殊道竟同歸”.

老稼齋는 형과 헤어져 十三山을 유람하였다. 이 때 형의 시에 차운한 시 한수가 있다.

身健猶加飯	몸은 건강하여 밥을 더 먹은 것 같고
炕寒更穩眠	온돌이 차가워도 오히려 편하게 잠을 이루네
驅馳敢居後	길 가는데 어찌 뒤처질 것을 생각하리오
歷覽每思前	이것저것 보아도 앞설 것을 생각하네
大漠圓胡月	넓은 사막에는 오랑캐의 달이 둥글고
荒城少漢烟	황량한 성에는 한인의 연기가 드물다
熏籠且慰意	형제의 정으로 마음을 달래니
安得廢詩篇 <sup>132)</sup>	어찌 시 짓는 것을 폐하리오

이 시의 원운은 『夢窩集』에 없다. 통상적인 여행로를 벗어나 위험한 산을 넘어야 하는 번거롭고 위험이 따르는 일이기에 夢窩는 일행과 별도로 유람하고 싶어 하는 아우 老稼齋에 대한 걱정을 표시하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老稼齋는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였다<sup>133)</sup>. 그러나 夢窩는 한편으로 동생의 오랜 숙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류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그저 함께 돌아가지 않으려는 것을 탄식할 뿐이었다.

형의 걱정과 달리 老稼齋는 씩씩한 모습을 보여준다. 몸은 건강하여 밥을 더 먹은 것 같고 온돌이 차가워도 오히려 편하게 잠을 이룬다. 그렇다고 행렬에서 뒤처질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앞장설 생각을 한다. 넓은 사막, 황량한 성에서 결코 형제의 정을 잊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사행의 노선은 엄격히 정해져 있었고 또 호행하는 무리들의 승낙을 받는데도 어려움이 따랐기에 난점이 있었지만 老稼齋는 다행히도 마패와 아역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老稼齋는 사신이 아닌 子弟軍官의 신분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打角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었고 일행들도 그에 관대하였다. 만약 노정을 이탈하여 별도

132) ‘次伯氏十三山又次先韻’ 『老稼齋集』 106면.

133) 『일기』 3月3日 164면.

로 구경하고자 하는 이가 夢窩였다면 아마도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위에서는 夢窩와 老稼齋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오는 다른 시각의 글들을 살펴 보면서 형제의 차이점을 분석해보았지만 추가적으로 당시의 사회상을 살펴 볼 때 이들의 변화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는 壯洞金門의 가문전통과 당시의 사회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양면성을 보인다.

壯洞金門의 인사로서 처음 연행했던 인사는 金尙容이고 그는 1598년(선조31)에 聖節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본격적으로 연행기록을 남긴 최초의 인사는 金尙憲이다. 그는 1626년(인조4)에 冬至聖節로 명에 갔다. 그 다음에 주목할 것은 金壽恒 金壽興 형제의 연행이었다. 金壽恒은 1653년(효종4)과 1673년(현종 14)에 각각 書狀官과 正使로 청에 다녀왔고 金壽興은 1680년(숙종6)에 正使로 청에 다녀왔다. 하지만 연행대상은 명에서 청으로 바뀌었으므로 그들은 유교의 정통을 이었던 명의 문물을 고민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었다. 명에 조천하여 觀國論樂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졌고 수치와 욕됨을 참으며 청을 섬기는 부끄러움만이 남게 되었다.<sup>134)</sup> 그러나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었다. 丙子胡亂에서 몇 십 년이 흐르는 시점에서 긴장의 이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명청 교체와 그 후유증이 가라앉지 않았던 金壽恒세대까지는 대명의리를 자각한 정서가 주종이었다면 다음 세대는 연행을 통한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수용하기 시작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건문의 확장과 정보의 수용이란 측면도 비중 있게 자리 잡아 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국제 정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연행의 일차 목적이므로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연행을 통한 지속적인 정보를 일찍부터 축적한 후세대는 좀 더 객관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理性과 情緒를 달리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 사대부의 정서였다. 척화의리를 자부하였던 壯洞金門의 인사들은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할 수밖에 없었다.

吳三桂의 亂이 평정되면서 청나라는 안정적인 지배질서를 구축하였다. 그에 상응하는 변화는 조선에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청나라에 대한 사회적 긴장이 자

134) ‘崇禎皇帝御筆二障購得始末記 9章’ 『文谷集』 卷二六 494면, “嗚呼,自惟下土. 虱臣既生晚, 不及在有之盛際 拭玉朝天, 以與於觀國論樂之會. 乃於天翻地覆之後, 包羞忍辱, 覲然爲皮幣之役.”



연스럽게 해소되고 있었고 尊周義理를 잇는 전통도 회박해 질 수 밖에 없었다. 국내외적으로 변화되는 상황은 조선에서 청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로 흐를 수 밖에 없었고 壯洞金門 인사들이 청의 문물을 대하는 태도 역시 변하지 않을 수 없었다.<sup>135)</sup>

吳三桂의 亂이 평정된 이후 壯洞金門 출신으로 연행한 이는 바로 夢窩와 老稼齋였다. 연행에서 돌아온 夢窩의 평가는 청의 문화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인 것이었다. 康熙帝가 근검절약하고 收稅가 공정하며 토목공사를 벌이지 않아 백성들이 편안히 지내고 원망이 없다고 평가한 것이다.<sup>136)</sup>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것은 그가 선입견을 어느 정도 배제하고 객관적인 이야기를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北風吹雪滾寒天	북풍에 눈보라 치는 추운 날
一出王城指薊燕	왕성을 떠나 연경으로 향하네
慕華館 <sup>137)</sup> 中查對後	모화관에서 확인을 한 뒤
延恩門 <sup>138)</sup> 下啓行先	연은문 아래서 먼저 출발하네
蕭蕭車馬愁征路	쓸쓸한 수레는 행로를 근심하고
脉脉衣冠惜別筵	사대부들은 전별의 자리를 아쉬워하네
落日弘橋多送者	해 질 무렵 홍제교에는 송별하는 이 많지만
臨歧無處不依然 <sup>139)</sup>	갈림길에 도착하니 전과 다를 것이 없네

이 시는 夢窩가 연행 당시 사행길을 떠나면서 弘濟橋에서 지은 시이다. 시에서 夢窩는 “愁”를 위주로 하여 사행에 대한 시름을 나타낸다. 이 때 만 해도 夢窩는 수동적이었다. 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夢窩는 임금님께 사행의 성과에 대하여 보고한 뒤 杜甫의 ‘秦州雜詩’에 차운하여 자신의 사행을 총괄하는 ‘用老杜秦州雜詩韻.追記燕行’ 20수를 지었다. 이 시에서는 평소의 지향과 사행을 떠날 때의 심정, 홍제관, 용만, 봉황성, 연경에 들렀을 때의 감회, 고국에 돌아왔을 때의 기쁨 등을 읊었다. 그 중 한 수를 살펴보기로 한다.

135) 이경구, 앞의 논문 p.214-215.

136) 『조선왕조실록』 40, 492면. “謝恩兼冬至使金昌集尹趾仁書狀官盧世夏復命. 上引見慰諭之. 問彼中事. 昌集等對以清皇節儉惜財. 取民有制. 不事土木. 民皆按堵. 自無愁怨”.

137) 慕華館: 사신을 영접하던 서대문 밖 영빈관.

138) 延恩門: 모화관의 문.

139) ‘出城’ 『夢窩集』 55면.

弘濟橋邊路	홍제교 갓길은
遙連萬里沙	만리의 모래땅과 아득히 이어졌네
依依惟戀闕	그리운 마음으로 대궐을 연모하고
戚戚敢懷家	근심하는 마음으로 집 생각하네
征旆風頻掣	사행의 깃발은 바람에 자꾸 펄럭이고
離筵日已斜	이별의 연회에는 해가 이미 저물었네
幽燕觀覽狀	연경에서 관람한 웅장함을
歸向故人誇 <sup>140)</sup>	돌아오면 사람들에게 자랑하리라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夢窩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연행을 추억하면서 지은 시이다. 이 시에서는 夢窩의 연행 뒤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사행길을 떠날 때 지은 夢窩의 시는 늘 걱정과 두려움이었고 그의 시에는 주로 “愁”, “怯”, “驚”, “恨” 등의 부정적인 심리를 반영하는 시구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지만 연행 뒤의 시문 ‘用老杜秦州雜詩韻’을 보면 이런 글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특히 미련의 시구가 그의 변화를 말해준다. 그는 연경에서 본 것들을 돌아가면 자랑하겠다고 한다. 연행 시 夢窩와 老稼齋와 수창한 시들을 비교해 보면 경물의 웅장함에 감탄하고 연행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던 이는 老稼齋였다. 하지만 그가 연행을 마치고 시구에서 연행 시 지은 시문과는 달리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夢窩가 청의 실상을 견문하고 난 뒤의 변화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행 시에 지은 시들은 기존의 정서를 계승하고 있었다. 객관적 정보를 전하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북벌의 정서를 표출하였던 가문의 전통을 답습하였던 것이다.

老稼齋는 산해관에 이르러 시 한 수를 호탕하게 읊었다.

第一關開正向東	제일관이 동쪽을 향해 열려 있는데
地形人力兩誇雄	지형과 인력 모두 웅장함을 과시하네
山如萬夫從天下	산은 만명의 장부가 천하에서 모시는 듯하고
城引危譙入海中	성은 높은 문루가 바다에까지 들어가고

140) ‘用老杜秦州雜詩韻追記燕行’ 『夢窩集』 70면.

局鏑終歸大盜有      쇠장대와 자물쇠는 결국 도둑의 소유가 되었으니  
 杵錐閑費幾年工      공기와 송곳은 몇 년의 공력을 허비했네  
 腥塵盡日胡車塞      비린 먼지 하루 종일 날리고 오랑캐 수레 가득한데  
 默立濠橋憶魏公<sup>141)</sup>      묵묵히 해자의 다리 위에 서서 위공을 그리네

산해관은 李自成과 대립하였던 吳三桂가 수십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잠복하였던 곳이기도 하고 연경이 가깝기에 예로부터 크고 작은 전투가 이루어졌다. 산해관의 만리장성 동문 성루의 간판에는 “天下第一關”이라고 적혀 있다. 老稼齋는 산과 바다 사이에 있는 관문이라는 거대함을 표현하기 위해 “地形”이라 하고 만리장성을 쌓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표현하기 위하여 “人力”이라고 한다. 함련의 시구는 산해관의 “山”과 “海”를 나누어 웅장함을 묘사한다. 老稼齋는 명이 망하고 청이 들어선 것을 莊子<sup>142)</sup>의 말을 빌려 비유한다. “杵錐”<sup>143)</sup>은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 땅을 파고 다진 도구이고 이로 오랜 세월이 거쳐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결국엔 異民族인 오랑캐 땅이 되어버렸다. 魏公이 쇠를 녹여서 바다에 붓고 그 위에다가 성을 쌓아 산해관이 이루어졌다는 전설이 있는데 老稼齋는 魏公을 생각하면서 청에 함락된 된 것을 안타까워하나 직접 산해관의 웅장함을 보고 감탄을 감추지 못한다.

老稼齋는 『일기』에서 역시 개인의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청의 문물을 견문한 그대로 담담하게 묘사하였다. 유일하게 주관적인 정서가 개입된 부분은 청인과 한인의 장단점을 제시한 것이었다. 하지만 「老稼齋堦簾錄」에서는 夢窩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대청인식의 차이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시 개인의 감정을 감추지 않고 직설적으로 서술되었다. 老稼齋는 일기라는 형식으로 연행의 경과를 꼼꼼히 기록하였기 때문에 한시라는 양식을 빌려서는 연행의 소회를 담아내는데 주력하였고 또 연행 시에 지어진 한시들이 대부분 선조와 형을 비롯한 일행들과 수창한 결과라는 사실 또한 「堦簾錄」이 지닌 서정성의 원인이기도 하다. 단지 老稼齋는 그의 「堦簾錄」 외에도 『燕行日記』라는 방대한 저서를 남겼기 때문에 그의 대청인식의 변화를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유력한 증거가

141) ‘到山海關’ 『老稼齋集』 107면.

142) 「胠篋」, 『莊子』, ‘將爲胠篋·探囊·發匱之盜而爲守備,則必攝緘縻固局鏑, 此世俗之所謂知也’.

143) 張籍, 「築城詞」, “築城處, 千人萬人齊把杵”.

남아 있어 형 夢窩의 강렬한 대칭의식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다.

老稼齋는 심양에 머물며 심양을 둘러보고 『일기』에서 아래와 같은 서술을 하였다.

“팔문로가 종횡으로 성안을 관통하였는데 井자와 같은 모양이었다. 남북 양 문로와 동서 양문의 길이 교차되는 곳에는 모두 십자루가 있다. 이 곳은 우리 나라의 종로거리와 비슷하여 사람이 모여들었으며 시장과 가게가 번성하였다. 처음에 서쪽을 향하여 백여 보를 갔다가 돌아와 또 북쪽으로 백여 보를 갔다가 돌아왔다. 마침내 동문을 향하여 가니 좌우의 시장에 휘황찬란한 온갖 물건들이 백여 보의 사이에 모두 쌓여 있었다. 노루와 사슴 그리고 토끼가 걸려 있는 것이 셀 수 없었다. 나무를 켜는 곳, 수레를 만드는 곳, 관을 만드는 곳, 의자와 탁자를 만드는 곳, 철기와 석기를 만드는 곳 같은 공장들과 쌀을 찧는 곳, 옷을 꿰매는 곳, 숨을 타는 곳 등 온갖 종류가 있었는데 기계가 편리하지 않음이 없어 한 사람이 하는 일은 우리 나라의 열 사람이 하는 것을 겸할 수 있다.”<sup>144)</sup>

老稼齋는 청나라 시가의 번성함을 그대로 묘사하였고 선진적인 기계를 조선과 비교하면서 그 이용의 편리함과 수공업의 발전상에 대해 기록하였으며 청나라의 발달된 모습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편리한 기계의 사용에 대한 관심은 훗날 북학파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립되는 사실을 볼 때 老稼齋의 시각은 北學論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老稼齋의 연행에는 견문의 확대라는 새로운 측면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의리 정신은 여전히 계승하여 명의 遺制를 찾는다고 표방하긴 하였지만 척화 의리의 본가를 자처한 壯洞金門의 인사들이 청의 현실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방한 것은 큰 변화였다. 그것은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老稼齋는 자유로운 打角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의 연행견문을 객관적으로 저술할 수 있었다. 훗날 『일기』의 공개여부를 떠나 夢窩와 달리 그는 평생

144) 『일기』 12월 7일 32면. “八門路. 縱橫貫城中. 如井字狀. 而南北兩門路與上東上西兩門之路交界處. 皆有十字樓. 此處如我國鐘街. 人物輻輳. 市肆繁盛. 始向西行百餘步而還. 又向北行百餘步而還. 遂向東門而去. 左右市肆. 百貨銜耀. 百餘步間皆堆積. 獐鹿兔之懸者. 不可勝計. 各色工匠. 如鉅木造車早棺造椅桌打造鐵器錫器. 及磨米縫衣彈棉花之類. 種種皆有. 而器械無不便利. 一人所爲. 可兼我國十人之事.”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행여 공개되어 시회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후환이 두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저서를 일기체의 형식으로 저술한 이유 또한 여기서 추정된다. 老稼齋의 『일기』에서의 청나라에 대한 묘사는 기존의 연행록과 달리 객관적이었다. 이런 老稼齋의 啓蒙思想은 후세 연행록의 본보기가 되었고 그들의 선입견도 어느 정도 타파하였으며 북학의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가 확립된 17세기 중반 이후 尊周義理를 자부한 壯洞金門의 후예로서 청 문물이 華夷의 양면을 가진 것에 대해 조심스럽지 않을 수 없었고 시문에서는 현실을 부정적인 내면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李德懋가 적극 평가한 점에서 北學派에 미친 영향을 감지할 수 있다. 이들의 문물수용 논리는 존주의리적 사고가 북학적 사고로 전환하는 시점에 위치해 있기에 대청의식 또한 양면성을 보인 것이다.

## V. 결론

본고에서는 夢窩 金昌集과 老稼齋 金昌業이 1712년에 청나라에 사행을 가는 과정에서 지은 시문을 수록한 「燕行燠簾錄」을 텍스트로 고찰하였다. 그 동안 학계에서는 산문집 『老稼齋燕行日記』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夢窩集』과 『老稼齋集』에 실려 있는 「燕行燠簾錄」에 대한 연구는 소략하였다. 본고에서는 「燠簾錄」의 시를 주로 청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낸 시, 선조를 회고하는 마음을 나타낸 시, 고국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 시로 분류하여 형제의 동질성을 고찰하였고 또는 형제의 시문을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김씨 형제가 연행하였던 시기는 丙子胡亂으로 인하여 北伐論과 對明義理論이 대세를 이룬 시기였다. 또 이들은 조선후기에 척화의리를 상징하는 壯洞金門에서 태어났다. 丙子胡亂 당시 증조부 金尙憲은 斥和로 인해 두 차례나 청에 끌려갔으므로 청은 이들 가문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었고 이들의 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연행 전부터 강렬했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형제는 연행길에 올랐다.

「燠簾錄」에서는 夢窩와 老稼齋가 모두 청에 대한 적개심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지만 夢窩의 대청의식은 아우 老稼齋보다 훨씬 부정적이고 강렬하다. 夢窩의 시는 대체적으로 스스로의 신념을 어기며 마음과 달리 오랑캐의 나라에 와서 조공을 바치는 자신의 처지에 한탄하며 부끄러워하는 내용으로 주로 개인의 비감을 노래한 것임에 비해 老稼齋의 시에서는 청에 대한 적개심 외에도 연행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 또한 청나라의 산하에 대한 감탄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老稼齋의 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夢窩의 시에서는 늘 불안과 걱정에 휩싸인 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형제의 시에서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된 것은 주로 서로가 처해있던 입장과 연행동기의 차이이다. 夢窩는 丙子胡亂으로 입은 가문의 수치를 잊을 수 없었고 부친의 유계를 어기고 정계에 서게 된 것에 늘 부담감을 가졌다. 하지만 六昌의 만형으로서 그는 개인적인 감정을 뒤로 하고 오직 나라와 임금님에 충성하려는 신

넘 하나로 사행길에 오르게 된 것이다. 증조부 金尙憲은 척화의를 지키기 위해 청나라에 끌려갔지만 청나라에 조공을 바치러 온 자신이 부끄럽기만 하였다. 보는 산하마다 선조의 자취가 곳곳에 남아 있는데 자신의 처지에 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夢窩의 시문에서 보이는 부정적인 태도는 이러한 내면적인 갈등으로 인한 것이다.

반면 老稼齋는 부친의 유계를 들어 평생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동계에 은거하면서 살았다. 그는 사내로 태어나서 늘 천하를 주유하고픈 포부가 있었다. 老稼齋의 이런 마음은 그의 시문 곳곳에서 드러난다. 그는 우연히 찾아온 청나라의 산하를 유람할 수 있는 기회에 기쁨과 설렘을 감추지 못하였다. 당시 조선사회는 北伐論의 분위기에 휩싸인 상황이었고 斥和論을 대표하는 가문의 후손이었지만 그는 주변사람들의 만류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행길에 나섰다. 시문에서는 그의 당당한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丙子胡亂에서 몇 십 년이 흐르는 시점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 시기에는 吳三桂의 亂이 평정되면서 청나라는 안정적인 지배질서를 구축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변화는 조선에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청나라에 대한 사회적 긴장이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있었고 尊周義理를 잇는 전통도 희박해지기 시작하였다. 金壽恒 세대에서는 대명의리를 자각하려는 의지가 주를 이었지만 후세에 와서는 여행을 통한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수용하기 시작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夢窩가 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지은 秦州雜詩를 보면 사행을 떠나면서 지은 시와는 다른 그의 가벼운 심정을 알 수 있다. 秦州雜詩 20수에는 그가 여행시에서 반복적으로 썼던 청에 대한 부정적인 어휘는 거의 없었고 사행길을 회억하는 것을 위주로 하였다. 또한 여행에서 돌아온 夢窩는 청의 문화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보아 그도 청의 문물을 접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老稼齋의 여행에는 건문의 확대라는 새로운 층면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櫛簾錄』에서 나타났던 개인적인 감정은 『일기』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일기』의 서술은 놀라울 정도로 객관적이고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 『일기』에서 증조부가 머물렀던 壽星村에 갔을 때도 그는 묘사에만 집중을 하고 개인적인 감정은

드러내지 않았다. 게다가 老稼齋는 打角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의 견문을 그대로 기록할 수 있었다. 『일기』의 공개여부를 떠나 夢窩와 달리 그는 평생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훗날 공개되어 비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았을 것이다. 연행기록을 ‘일기’라고 이름 지은 이유 또한 여기서 추정된다. 老稼齋는 연행의 경과를 꼼꼼히 기록하여 방대한 저서 『일기』를 창작하였기 때문에 대청 인식의 변화가 형 夢窩보다 뚜렷하게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燠簾錄」의 시문에서는 개인적인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들은 한시라는 양식을 빌려서 연행의 소회를 담아내는데 주력하였고 또 연행 시에 지어진 한시들이 대부분 선조를 비롯한 일행들과 수장한 결과라는 사실 또한 「燠簾錄」이 지닌 서정성의 원인이기도 하다.

夢窩 형제는 평소에 중국문물에 대한 관심과 시대적 배경과 더불어 연행과정에서 대청인식에 대한 변화를 보이긴 했으나 척화를 대표하는 壯洞金門 후손으로서 이들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내면에는 청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였기 때문에 존주의리적 사고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청의 선진적인 문물을 보고 배우자는 주장도 선뜻 내놓지 못하였다. 후세의 북학사상에 미친 영향은 무시할 수 없으나 기존의 사고방식의 틀을 타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북학으로 전환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燠簾錄」을 텍스트로 하여 연행 시에 지은 시문에서 나타난 형제의 정서의 같고 다른 점을 초보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하지만 「老稼齋燠簾錄」에는 오로지 자신의 시만 수록되어 있는 반면 왜 「夢窩燠簾錄」에는 老稼齋의 시가 77편이나 수록되어 있으며 「老稼齋燠簾錄」에는 없는 39수의 시의 수록은 편집자의 어떤 의도나 기준이었는지 알아내지 못하였다. 그리고 「燠簾錄」에 실려 있는 선조의 차운시는 대부분 부친의 시에서 차운한 것임은 확인되었지만 몇몇 시편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들의 내면세계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한다. 이것을 다음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 참고문헌

### 자료

- 金昌集, 『夢窩集』  
金昌業, 『老稼齋集』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金壽恒, 『文谷集』  
金尙憲, 『淸陰集』

### 논문, 단행본, 기타

- 구본현, 「老稼齋 金昌業 한시 연구」, 『한국한시작가연구』 13권, 2009.  
김남기, 「金昌集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2권, 2008.  
김상조, 「金昌業의 老稼齋燕行日記 研究」, 영주어문연구회, 2005.  
김아리, 「老稼齋燕行日記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김창현, 「老稼齋燕行錄에 대하여」, 『旅行과 體驗의 문학』(중국편), 민족문화문고  
간행회, 1986.  
김태준, 「燕行錄의 教科書-老稼齋燕行日記」, 『국제한국학연구』창간호,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2003.  
김현미, 「18세기 연행록의 전개와 특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박지선, 「金昌業의 老稼齋燕行日記 研究」, 『語文研究』 86, 1995.  
\_\_\_\_\_, 「老稼齋燕行日記의 書誌的 考察」, 『語文研究』 88, 1995.  
\_\_\_\_\_, 「金昌業의 老稼齋燕行日記」,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유재임, 「老稼齋燕行日記에 나타난 對淸意識 研究」, 충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1.
- 윤경희, 「18세기 초 壯洞金氏 일문의 연행체험-金昌集의 燕行壘簾錄을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 제19집, 2007.
- \_\_\_\_\_, 「燕行壘簾錄小考」, 한국어문학 국제학술포럼 제5차 국제학술대회, 2008.
- 이경구, 「17-18세기 壯洞金門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이경자, 「老稼齋燕行日記小考」, 『한성어문학』 3, 1984.
- 이군선, 「老稼齋燕行日記의 서술시각과 수법에 대한 고찰」,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조수익, 「老稼齋의 中國體驗-그의 연행일기를 중심으로」, 『旅行과 體驗의 문학』 (중국편),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6.
- 劉廣銘, 「“老稼齋燕行日記”中的康熙形象-兼于同時期歐洲人語境中的康熙形象比較」, 『解放軍外國語學院學報』 2, 2006.
- \_\_\_\_\_, 「“老稼齋燕行日記”中的滿人形象-兼于其中的漢族人的漢族人形象比較」,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2, 2008.
- 全美子, 「金昌業燕行日記中的中國形象」, 『中國研究』 제29권, 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02.
- 魏紅, 「老稼齋燕行日記研究-對淸意識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楊蕾蕾, 「老稼齋燕行日記가 그린 청나라」, 서울대학교 『冠嶽語文研究』 제35집, 2010.
- 于淼, 「18세기 조선 문인의 청나라에 대한 인식연구-燕行錄에 나타난 華夷思想 및 北學思想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左江, 「燕行錄全集考訂」 張伯偉 編, 『域外漢籍研究集刊』 第四輯, 中華書局, 2008.

## 中文摘要

### 夢窩金昌集与老稼齋金昌業的〈燕行堧箎錄〉研究

程丹

韓中兩國的交流源遠流長,長期以來在文化,政治,經濟等方面進行了衆多交流.兩國在確立了冊封朝貢關係之后爲了進一步了解發展狀況,互相派遣了使臣,而這些使臣在使行過程中一路上記錄下來的所見所聞成爲當今研究兩國歷史与文化的重要資料.

本文研究的作品〈燕行堧箎錄〉爲朝鮮后期的文臣金昌集与其四弟金昌業在肅宗38年往返燕京時留下的詩集.朝鮮時期往返清朝的使行記錄大部分被稱爲“燕行錄”,而“堧箎”一詞最初出現在《詩經·小雅》的“何人斯”中,二者皆爲古代樂器,因合奏時聲音相應和,因常以“堧箎”比喻兄弟親密和睦.金昌集与金昌業將燕行途中酬唱的詩,收錄在各自的文集中,一同命名爲“燕行堧箎錄”.

金氏兄弟前往燕京是在朝鮮經歷兩亂(壬辰倭亂与丙子胡亂)后已過几十年的1712年,北伐論与對明義理論爲當時朝鮮內部的主流.金昌集与金昌業爲老論派的代表家門-壯洞金門的后孫.兄弟的曾祖父金尙憲爲丙子胡亂時期主張斥和論并曾兩次被清軍押到沈陽的人物.二者作爲壯洞金門的后孫,前往燕京前對清朝的統治是持有否定態度的.金昌集爲朝鮮時期有名的老論四大臣之一,而金昌業則一生不慕名華富貴,隱居在東郊,當金昌業得知長兄作爲冬至使兼謝恩使前往燕京時,主動提出要跟隨金昌集,二者則以完全不同的身份踏上了燕行之路.

本文結合當時的時代背景,壯洞金門的背景以及兄弟的身份差异等因素對〈燕行堧箎錄〉做了初步的研究.本文將堧箎錄分爲以下三方面對兄弟酬唱詩文的相同点進行了考察.第一,對清朝的敵對意識;第二,對先親的回顧;第三,對故國与家族的怀念之情.最后,通過比較二者的詩文,分析了其中的不同点以及原因.

本文對18世紀朝鮮文學作品的研究,不僅對於了解封建時期中韓兩國的歷史有重大意義,而且對於了解朝鮮士大夫階層對清朝的看法以及意識的變化有着重大意義.